

2006 年 2 月

碩士學位論文

張愛玲 小說「紅薔薇 與白薔薇」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閔新惠

張愛玲 小說「紅薔薇 與白薔薇」研究

(A)Study on Zhang ai ling`s novel 「Red
rose and white rose」

2006 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閔新惠

張愛玲 小說「紅薔薇 與白薔薇」研究

指導教授 鄭 相 和

이 論文을 工學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 年 10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中 語 中 文 學 科

閔 新 惠

ABSTRACT

A Study on Zhang ai ling's Novel 「Red Rose and White Rose」

Min Shin Hye

Advisor : Prof. Kim Ha-Lim Ph.D.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any studies or data on Zhang ai ling's literature have not been introduced.

Zhang ai ling was brought up in an rapidly-changing environment where Oriental culture is mixed with Western culture and began to write when she was young. In particular, she wrote the " Red Rose and White Rose " , a novel published in 1945 when she was in psychological confusion. So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er literary world through analytic psychological approaches such as identification of 'Anima' and 'Animus', targeting on characters in her novel.

'Anima' is a female element existing in unconsciousness of men and 'Animus' is a male element existing in unconsciousness of women. They are universal and primitive properties beyond socially accepted ideas.

This approach presented by C. G. Jung is based on experimental

psychology that prepares an assumption through experiences and applicable psychology which is actually useful. It is approached through causationism and teleology. The " Red Rose and White Rose " represents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author created through her experiences, personality and family environment and describes observation and criticism on the world. However, it is not thought that a psychological situation can be determined with description of several characters in this novel.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is analytic-psychological study for the characters in the novel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literary trend of the author.

目 次

ABSTRACT

제 1 장. 序 論

- 제 1 절. 研究目的과 必要性 1
- 제 2 절. 既存研究 檢討 7
- 제 3 절. 研究方法과 範圍 12

제 2 장. 張愛玲 生涯

- 제 1 절. 成長期 17
- 제 2 절. 上海 活動期 20
- 제 3 절. 海外 活動期 22

제 3 장. 「紅薔薇與白薔薇」의 主題 分析

- 제 1 절. 男性優越意識과 女性 24
- 제 2 절. 紅玫瑰와 白玫瑰의 相互關係 28

제 4 장. Anima와 Animus의 側面에서 考察한 「紅薔薇與白薔薇」

- 제 1 절. Anima 側面과 振保 31
- 제 2 절. Animus 側面과 烟燴 47
- 제 3 절. Animus 側面과 嬌蕊 54

제 5 장. 結論 58

參考文獻 61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目的과 必要性

국내의 중국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는 古代나 近代의 여성 작가는 물론이고 現代나 當代의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중국 현대 문학에 국한해서 살펴보더라도 丁玲이나 冰心 같은 현대 중국의 대표적 여성 작가들에 대한 연구도 미약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張愛玲 논문이나 자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張愛玲은 1949年 上海가 中國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上海에 머무르며 대륙의 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한 후 1952年 홍콩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홍콩에서 공산당의 폭정과 대륙의 참상을 주제로 장편소설 「秧歌」와 「赤地之戀」을 발표한다. 그 후 張愛玲은 美國과 臺灣¹⁾에서도 활동을 한다. 그동안 張愛玲에 대한 研究와 評價은 1960~1980년대 美國과 臺灣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70年代末~1990年代初²⁾ 中國現代文學界에 文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새로운 認識이 생겨나면서 張愛玲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대두되고, 1990년대 들어와서 張愛玲 연구는 '張愛玲熱'이라고 불릴 만큼 관심을 받게 되었다.³⁾ 그래서 현재 張愛玲 작품은 중국 대륙에서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으며, 전기도 많이 출판되며, 대중매체에서 작품이 상연되고 있다. 1930년대 중국 여성작가들은⁴⁾ 모더니즘적 認識의 등

1) 張愛玲은 35세 때 미국 작가 Ferdinand Reyher와 New York에서 결혼을 한다. 미국 시민이 된 후 대만을 방문하고 1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 후 대만에서 소설 「十八春」이 『半生緣』이란 제목으로 출판되고, 『張愛玲專號』가 출판되었다.

2)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된 이후 張愛玲 작품이 사상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문학사에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는데, 1970년대 末~90년 初 中國에서 嚴家炎, 吳福輝, 楊義, 趙園, 孟悅, 趙順宏등이 張愛玲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3) 중국에서 張愛玲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은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6年 1期)에 "張愛玲研究專題"가 개설된 것을 통해 인식 할 수 있다.

4) 1930년대 등장한 여성작가들은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평등주의에 집착하여 여성과 남성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모든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그러나 앞 세대의 작가들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평등주의에 집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에 있어서 남

장과 上海 淪陷區라는 독특한 상황을 겪으면서 傳統과 社會, 西歐와 中國, 女性과 男性 등의 대립된 意識을 본격적으로 認識하는데, 1930년대 이후 좌익문학의 영향으로 여성작가들이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中國의 女性 작가들은 ‘文學은 社會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문학의 공리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여성문제가 사회 변혁 운동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향이 짙어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후반 활동했던 張愛玲이 등장하면서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인해 매몰되었던 여성문제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문단 상황과 상관없이 여성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⁵⁾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작가의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던 여성 특유의 자전적인 글쓰기의 충동(the impulse toward autobiography)에 근거하여, 여성의 자아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험의 기술은 자전적인 여성수기(auto gynography)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여성 자신의 경험은 언어적인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동기가 되고, 여성이 겪었던 체험은 분석 가능한 서사적인 텍스트가 되며 자신의 체험을 작품에 투영된 여성인물을 통해 기술한다.

“여성중심비평”을 표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평가 Elaine Showalter는 “여성”이란 생물학적 성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남성에 의해 억압된 여성의 현실에 관해서 여성의 시각을 보유한 사회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과는 다른 여성 특유의 경험, 문화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성과 동등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힘이 부족한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 정부 수립 이후 남녀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요구함으로써 생물학적 힘의 ‘차이’로 인해 ‘차별’적 시각을 갖도록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평등의 기준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남성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프랑스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丁玲을 대표로 하는 당시의 여성작가들은 남성작가들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면서 남성들과 같은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남성들과 동등한 역할, 임금, 지위를 요구했던 서구의 초기 여성주의자들의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5) 李子云, 『從女作家作品看中國婦女意識的覺醒』(中國: 三聯書店, 1994), p.490

張愛玲의 삶은 봉건적인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부패한 귀족 자제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이기심과 허구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었기에 대부분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특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蓄妾하는 등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이기적이며, 지배적이고, 性적으로 무책임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張愛玲이 활동했던 1930~40년대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정부의 수립과 일제의 강점, 국공합작, 서안사변 등 중국 근대사의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대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가족윤리와 사회 경제 구조가 이중으로 붕괴되던 시대로 舊사회의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 前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張愛玲의 작품은 상해를 주무대로 하고 있다. 上海는 근 1백년간 발전한 도시로 現代 中國의 縮小版이다. 바로 이 都市에서 中國은 처음으로 19c 유럽의 治外法權, 軍艦外交, 外國人 租界地와 침략이라는 經驗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 도시는 傳統的인 인습을 확대시키고 직관에 의존하고 농업 위주의 낮은 효율이라는 전통 중국의 문명과 이성적이고 法規를 중시하며 공업이 발달되고 효율이 높은 서구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양자의 접촉 결과와 중국의 반응은 바로 上海에서 맨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고, 現代 中國은 바로 여기에서 탄생한다.⁷⁾

上海를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紅薔薇與白薔薇」의 주인공 振保는 청년 시절 英國으로 유학을 가서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여성에 대한 느낌들을 薔薇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白玫瑰는 거룩하고 깨끗한 여인, 紅玫瑰는 열렬한 情婦를 상징한다.

다음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 振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는 과거시험 출신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공장에서 실습까지 하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견실한 학식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빈손으로 시작하

6) 김성곤, "현대 영미 페미니즘과 '여성중심비평'" 『외국문학』, 17, (1988), p.17

7) 김하림, 『중국인도 다시 읽는 중국사람 이야기』 (서울: 에디터, 1998) p.103

여 세상을 헤쳐나갔다.⁸⁾

(他是正途出身，出洋得了學位，並在工廠實習過，非但是真才實學，而且是半工半讀赤手空拳打下來的天下.)

소설 「紅薔薇與白薔薇」는 張愛玲이 결혼을 하고 이 후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쓴 작품으로,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삶 안에서, 결혼에 실패 한 후 쓴 작품이기에, 「紅薔薇與白薔薇」는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여인의 삶을 보여주며 남성의 양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학 연구에서 심리적 분석은 프로이드(Freud)의 리비도(Libido)⁹⁾ 개념인 성욕충동이나 꿈의 해석에서 방어기제 중시 또는 무의식이 개인적 무의식에 치우친다는 학설과 프로이드(Freud) 학파의 무의식적 억압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성적 외상으로, 외디푸스 콤플렉스¹⁰⁾ 등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융(Cale Jung)의 사상은 방대하여 윤곽을 찾기 힘들어서인지 심리적 분석에 잘 인용되지 않았다.

융은 人間精神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研究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의 저서나 논문에는 환자들의 체험 내용뿐 아니라 문학 및 예술 작품, 철학사조, 종교적현상, 인류학적 자료, 심지어는 이상심리학(Parapsychologie)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다. 융의 직관은 늘 현재를 넘어 미래와 과거의 시간을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19C 이후의 합리적 시대정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린 역사의 그늘에 잠겨 있던 값진 인류의 유산을 하나씩 밝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것이 당대의 몇몇 인류학자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원시심성이며 서구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동방의 지혜, 인도의 요가, 노자의 철학, 티벳의 密敎, 그리고 선(禪)이었다.

8) 張愛玲, 『張愛玲作品集』(中國: 南海出版公司, 2004), p.36

9) 라틴어로서 일반적인 욕동(欲動)·희구(希求)·충동 혹은 의욕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성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10) 李符永, "Jung의 성욕관", 『한국임상성학회지』, 1, no.1, (1989). pp.12~22

따라서 합리주의를 신봉하던 당대의 학자들에게 융의 학설은 간혹 위협적이고 또한 불가해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¹¹⁾

누구에게든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열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인간정신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융 이후에 나온 다른 분야의 여러 학자들, 즉 신학, 종교사학, 인류학, 신화학, 문학, 예술분야 혹은 심지어 신프로이트학파의 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은연중에 따르고 있는 사실과¹²⁾ 그리고 그의 서거 10년 후에 구미에 일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는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열풍, 융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는 흥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설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융의 학설은 단순히 생각하고 꾸며낸 논리적 사고의 결과도 아니고 최고의 진리임을 주장하는 신앙고백도 아니며 실험적 통계적 고찰의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마음의 움직임을 진지하게 살펴간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엮은 가설이다.¹³⁾ 융의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이론은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의 성향에 관한 학설이다. 융의 학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는, 지극히 자연스런 구별에서 출발한다. 남녀의 의식이 다른 만큼 무의식의 심혼에 대한 성향 또한 다르다.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대조되는 성향의 내적 인격을 인식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내적 인격이 충분히 인식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녀의 타고난 장점을 살리면서도 의식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성숙한 인격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남성이나 여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개성을 가진 존재이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열등감을 남근 결손에서 온 남근선망과 결부시킴으로서 여성심리를 일방적으로 남성 우위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그러나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학설은 남녀를 동등한

11)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24.

12) 李符永, 前掲書, p.24.

13) 李符永, 前掲書, p.25.

선상에서 보면서 남녀의 서로 다른 특성을 의식과 무의식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¹⁴⁾ 그러므로 융은 흔히 말하듯 철학자가 아니고 경험론자이며 자기의 입장은 현상학적인 입장이라 말한다. 경험은 새로운 어떤 것을 동화해 가는 과정이므로 비판적인 고려 없는 경험이란 실상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경험한 자료를 그저 분류하고 쌓아 두는 것만으로는 살아 있는 체험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¹⁵⁾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張愛玲의 「紅薔薇與白薔薇」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식에 잠재해 있는 '원형'을 분석함으로써 1930-40년대 중국인, 좁혀서는 상해인들의 의식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張愛玲의 성장기, 상해 활동기, 해외 활동기로 나누어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남성우월의식과 여성, 「紅薔薇與白薔薇」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측면에서 본 振保, 烟癩, 嬌蕊에 대해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인 면과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것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근대 중국에 있어서 '근대성'의 문제가 張愛玲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14) 李符永,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2004) pp.24-25

15) C. G. Jung, *Psychologie und Religion*, Gesammelte Werke 11(Zurich: Rascher Verlag), p.1,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25에서 재인용.

第 2 節. 기존연구 검토

張愛玲에 대한 기존 연구는 臺灣에서 활발하고 중국 이외 외국에서도 연구되며 국내에서도 조금씩 연구되고 있기에 나누어서 검토해 본다.

國內에서 崔仁愛는 단편소설을 통해 新舊의 갈등과 대립, 남녀의 혼인 세계, 인성의 세계로 분류하였고¹⁶⁾, 「張愛玲短篇小說研究Ⅱ - 色彩의 運用」¹⁷⁾에서는 張愛玲의 단편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色彩들이 인물의 형상화와 주제 부각, 장면의 형상화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옥연의 「中國 現代文學의 最近 動向」은¹⁸⁾ 1990년대로 들어선 이후 중국 현대문학에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문학사관이 태동하게 되어 제3세계 문학론, 탈식민주의, 근대성론이 맞물리면서 현대 문학사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張愛玲에 대한 평가가 反근대성이라는 각도에서 새로운 연구와 평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고, 宣釘奎¹⁹⁾는 張愛玲 소설의 제재와 등장인물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소설 속의 남성과 여성을 분석하였으며, 李康姬는 「張愛玲 短篇小說研究」²⁰⁾에서 張愛玲 短篇小說에 등장하는 작중인물 중심으로 남성상과 여성상을 나누어 분류하였다. 焦育文은 「張愛玲의 “傳奇” 研究」²¹⁾에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정신세계와 갈등 구조를 분석하였다.

洪銀希는 「張愛玲의 初期小說研究」²²⁾에서 張愛玲의 초기 소설 중에서 작

16) 崔仁愛, “張愛玲短篇小說研究Ⅰ - 題材內容分析”, 『中國語文集』 第12輯,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17) 崔仁愛, “張愛玲短篇小說研究Ⅱ - 色彩의 運用”, 『中國語文學』 第14輯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8)

18) 이옥연, “中國 現代文學의 最近 動向”, 중국어문연구회 발표문 1994년

19) 宣釘奎, 「張愛玲 小說의 男性과 女性本位」 『國際文化研究』 第2輯, (청주대학원, 1985)

20) 李康姬, “張愛玲 短篇小說研究: 작중 인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9.

21) 焦育文, “張愛玲의 “傳奇”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5.

22) 洪銀希, “張愛玲의 初期小說研究-작중人物的 心理分析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1997년

중인물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작중인물의 불안심리의 야기 요소와 양상에 대해서 불안심리를 표출하는데 사용한 기법을 연구하였다.

張智惠의 「張愛玲 長篇小說 ‘半生緣’ 研究」²³⁾에서는 張愛玲이라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소설적 대응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소설이라고 연구하였으며, 金順珍의 「張愛玲 소설 연구」²⁴⁾에서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중국의 여성의식과 소설을 통해 본 여성의 몸·권력·서사를 논하였다.

許世旭의 「中國現代文學史」에서는 고도²⁵⁾의 작가들 안에서 張愛玲는 비록 단편들로 40년대를 마무리했지만 몰락하는 상해, 탐욕과 원한 속에 침몰하는 상해를 그렸으니 40년대를 살면서도 인간 탐구의 한 장이 꺼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²⁶⁾

中國의 殷國明, 「中國現代文學流派史」에서는 張愛玲과 社會言情小說에 대해서 분석하였고²⁷⁾, 黃修己의 「中國現代文學發展史」 1989년에는 작품이 좌익 작가가 사회 해부적인 시각으로 조계지를 묘사한 것과 다르고 신감각과의 도시소설과도 다른 전통적인 현실주의 기법으로 조계지의 생활을 반영했다고 평가한다. 嚴家炎, 「中國現代文學流派史」 1989년에는 1930년대 심리 분석소설을 계승한 작가로 평가하며, 顏純鈞²⁸⁾에서는 張愛玲가 고대 전기의 기괴와 고사를 이야기하는 전통을 이어 인물을 묘사하였으며 서방 소설 방식을 흡수하여 매우 깊이가 있다고 평한다.

趙園²⁹⁾은 張愛玲 소설을 구성하는 기본 모순은 자본주의와 봉건성이라고 평

23) 張智惠, “張愛玲 長篇小說 ‘半生緣’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4) 金順珍, “張愛玲 소설 연구: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몸·권력·서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25) 상해의 ‘고도’ 시기는 1937년 11월 일본군이 상해를 침공하면서부터 1941년 12월 진주만 사건이 발생하여 일제가 상해의 조계 마저 점령하기까지 4년 1개월 동안을 뜻하지만, 보통 중일전쟁 기간 동안 상해에서 활약한 작가들을 통틀어 ‘고도’의 작가라 말한다. 그러나 거주 이동이 자유를 누렸던 그들인지라 꿈쩍하지 않고 상해로 거주를 제한했던 사람은 없었다. 대체로 이 기간 동안 ‘고도’에서 살았거나 작품을 썼던 사람을 ‘고도’작가로 일컫는다.

26) 許世旭, 『中國現代文學史』, (서울: 法文社, 1999), pp. 450-452

27) 殷國明, 「中國現代文學流派史」, (中國: 1989)

28) 顏純鈞, “評張愛玲的短篇小說”, 『文學評論叢刊』, 1982年 11期

하며,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생존 수단으로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결혼이 어떻게 여성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하지만, 張愛玲 소설의 특성으로 강렬한 역사의식, 풍부한 상상, 인정과 풍속에 대한 숙련된 처리, 인물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발견 등을 들며, 20C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하나로 언급한다.

于青³⁰⁾은 5·4이후 여성 작가들과 張愛玲를 비교하면서 張愛玲은 여성 본연의 자연스런 욕망의 합리성을 묘사하여, 家庭神話와 허구적 女性神話를 거부하며, 여성 억압의 현실을 당당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한다.

劉思謙³¹⁾은 張愛玲 소설의 관점이 서양 문학과는 다르게 反家庭적이지 않으며 과장 없이 현실에 기본을 두고 결혼 생활과 도시 생활을 묘사하였으며 女性神話를 뛰어넘고 있다고 평한다. 譚正璧은 「論蘇青與張愛玲」에서 5·4시기 여성 작가들이 전면적인 압력에 반항하여 사회 대중을 향해 외쳤다면 蘇青과 張愛玲는 자유를 쟁취하며, 개인의 고민을 소리쳤다고 평하였다.³²⁾ 夏志清³³⁾은 1940년대 이후 문학사에서 최초로 張愛玲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王劍叢³⁴⁾에서는 張愛玲 작품과 통속소설을 비교하여 '통속소설로 기본을 삼고 새로운 표현기교를 가미하였으며, 서방 현대소설의 심리묘사와 중국 전통소설의 이미지 예술이 결합되었다고 평가한다.

冰心, 董乃斌, 錢理群³⁵⁾은 張愛玲이 '전통'과 '현대', '雅'와 '俗'을 의식적이면서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이 둘 사이의 평형과 소통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며, 이 점이 그녀의 뛰어난 점이자 중국 현대문학에 끼친 크나큰 공헌이라고

29) 趙園, “開向瀟港“洋場社會”的 窗口-讀張愛玲的小說集‘傳奇’”, 『中國現代文學叢刊』, 1983, 3期, pp.206-220

30) 于青, “拜非自覺的女性內心意識-張愛玲等女作家群”, 『安徽文學學報』, 1989年 4月

31) 劉思謙, 『“娜拉”言說-中國現代女作家心路紀程』(中國: 上海文藝出版社, 1993)

32) 譚正璧, 「論蘇青與張愛玲」, (中國: 1945)

33)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臺灣: 傳記文學史, 民國 68年)

34) 王劍叢, “雅俗結合的寧馨兒”, 『社會科學戰線』 1991年 1期

35) 김태만, 『그림으로 읽는 중국문학 오천년』, (한국: 예담, 2001) p.374

주장한다.

프랑스에서는 傅雷가 문학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상태 즉, 淸慾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품의 풍격이 “新舊 문자의 혼합, 新舊 의경의 교착이다”³⁶⁾라고 하면서 「金鎖記」가 「狂人日記」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한다며 중국 문단에 수확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회화, 음악, 역사의 운용에 있어 문체가 화려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며 기교 부분에 관해 극찬을 하면서 이후 작가가 지나치게 기교에 탐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美國에서도 張愛玲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Jeannie Bohlmeier³⁷⁾는 張愛玲이 낯선 중국을 외국의 독자들에게 잘 소개시켜 주었다고 평가하고 張愛玲의 몇몇 작품의 제목과 내용, 주인공의 심리, 서양문학의 비평수법등 각 방면에서 여러 관점으로 분석한다.

Stephen Cheng³⁸⁾는 張愛玲 소설의 대부분은 실의에 빠지거나 장애 때문에 생존하기 위한 타협으로 인간관계의 각종 모형 등을 묘사했으며 상징과 意象이 많아 일관된 정서를 이끌고 즐거리를 추진시키는 모티브가 된다고 평가한다.

Edward M. Gunn, Jr.³⁹⁾ 박사학위논문에서는 張愛玲 소설이 환경적인 힘에 의해 인물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소설과 인물의 의지가 환경을 지배한 소설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했으며 결말 부분에서 張愛玲 소설이 Freud의 심리학과 전통소설의 기교의 결합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면을 폭로한다고 하였다.

36) 傅雷, “論張愛玲小說”, 『萬象』, 1944年

37) Jeannie Bohlmeier, 「Eileen Chang's Bridges to China」 Tamkang Review 5:1 (April, 1974) pp.111~127

38) Stephen Cheng, 「Themes and Techniques in Eileen Chang's Stories」 Tamkang Review 8:2 (Oct, 1977) pp.169~200

39) Edward M. Gunn, Jr. Unwelcome Muse : 「Chinese Literature in Shanghai and Peking 1937~1945」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臺灣에서는 王拓⁴⁰⁾이 張愛玲 短篇小說은 “사회 진보에 위배된다”고 평하며, 水晶⁴¹⁾은 張愛玲 작품은 거칠게 보면 장회소설 같지만 정신기교가 서양에 가까운 현대적인 것이라고 평한다.

唐文標⁴²⁾는 몰락한 上海 세계의 가장 훌륭하면서 가장 최후의 대변인이라고 평하고, 공리성과 사회성으로 작품세계를 평가하여 평론계의 반대를 받기도 했다.

40) 王拓, 『張愛玲與宋江』, (臺灣: 藍燈文化事業公司, 1976), p.101

41) 水晶, 『張愛玲的小說研究』, (臺灣: 大地出版社, 1973)

42) 唐文標, 『張愛玲雜碎』, (臺灣: 聯經出版社, 民國 65년)

第 3 節. 研究方法과 範圍

모든 것이 분석되고 해체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포스트모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시대가 와버린 것 같다.

해체든 결합이든 균형 잡힌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작업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공유하면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각적인 가치관과 시야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정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갈등과 고통의 근원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던 정신분석은 백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유사한 이론들과 기법들이 출현하면서 초창기 보였던 신선한 충격으로부터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의 정보가 너무도 일시에 만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분석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심리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양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그 사회의 남녀관, 즉 전통적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남녀의 평등을 부르짖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구조도 다르고 생리적 기능도 다를뿐더러 심리적인 특성도 어떤 문화나 사회의 남녀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다르다.⁴³⁾

대체로 남성은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 사회적 지위, 권위와 법, 명예를 존중하고, 정치, 기업, 국가, 또는 학문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사고와 판단,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나 철학 같은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한다. 남성적인 것의 모상(模像)인 원형으로서의 ‘아버지’는 창조적 기풍, 입김, 기(氣, Pneuma), 아트만(Atman), 혼(Geist)이다. 인간과 법과 국가, 이성과 정신에 대한 관계를 결정하는 존재이며 자연의 동적(動的)인 힘, 바람과 폭풍과 뇌성과 번개같은 것이다.⁴⁴⁾

43) C. 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 (Zürich: Rascher Paperback, 1963), p.81,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86에서 재인용.

여성은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느낌으로써 세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회와 국가보다는 가정이, 추상적인 이념이나 학설,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다. 여성의 의식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 이지만 예외는 있다. 여성적인 것의 모상, 원형으로서의 ‘어머니’는 대지(大地)와 같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기도 하나 또한 죽음을 포용하기도 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인 것, 비합리적이며 영원한 것에 연계되어 있다.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는 라틴어로서, 우리말에는 적합한 말이 없지만, ‘마음’ 또는 ‘뉘’ ‘정신’ 또는 ‘혼’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모두 적합하지 않다.⁴⁵⁾ 이러한 내적 인격은 외적 인격 때문에 생겨난 산물이 아니고 본래 그렇게 체험하게끔 준비된 원초적인 조건, 즉 원형(原型, archetype) 가운데 하나로 아니마, 아니무스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인 요소를 “Anima”라고 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Animus”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이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 보편적, 원초적 특성을 말한다. 의식의 외적 인격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내적 인격의 특성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전인격에 보충됨으로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것인데 남성과 여성은 어릴 때부터 성향이 다르고 자라면서 개인이 속하는 가정, 사회 집단의 남녀관의 페르조나(Persona)⁴⁶⁾에 따라서

44) C. G. Jung, *Seele und Erde* (Zurich: Walter Verlag), p50,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87에서 재인용.

45)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원형archetype으로서 아니마, 아니무스에 걸맞게 Anima를 심령(心靈), Animus를 심혼(心魂)이라 번역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심혼 心魂 - 심혼(心魂)[명사] 마음과 혼(정신). 온 정신.

심령(心靈)[명사] 1. 마음이나 정신 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 존재.

2. 육신과 대립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마음의 주체.

3.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육체의 생사(生死)와 관계없이 영존(永存)한다는 비물질의 불가사의한 존재. ↔육신·육체(www.daum.co.kr)

참조.

C. G. Jung, *Von den Wurzeln des Bewußtsein* (Zürich: Rascher Paperback, 1954), p.63.에서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서 Seele(마음, 心) 또는 Seelenbild(心像)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46)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탈춤처럼 어떤 사

그 차이점이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남녀의 의식적 태도의 차이점이며 무의식에는 서로 다른 요소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남성과는 다른 심리를 지니고 있는 여성은 남성이 전혀 눈뜨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원천이 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영감(靈感, Inspiration)을 의미한다. 남성을 훨씬 능가하는 여성의 예감(豫感)능력(Ahnung-svermogen)은 남성에게 유익한 경고를 주며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둔 여성의 감정은 남성에게 그가 지니고 있는 별로 개인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감정으로는 찾기 힘든 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⁴⁷⁾

張愛玲은 어린 시절 부친의 뜻으로 서당에서 배운 고전문학에 대한 지식과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모친에게 배운 전반적인 서양 문화와 문학이 한데 어우러져 文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傳雷⁴⁸⁾가 “회화, 역사, 음악의 운용에 있어 그녀의 文體는 특히 화려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⁴⁹⁾라고 했을 정도로 文體가 화려하고 意象이 풍부해서 ‘張愛玲體’라는 것이 만들어 질 정도였다. 張愛玲의 복잡하고 풍부한 意象은 전통적인 敘事적 기법⁵⁰⁾과 모더니즘적인 痛感手法⁵¹⁾을 다양하게 사용해 소설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고 인물들과의 심리 상태를 실감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마음의 의사(Seelenarzt)임을 자처하고 인간심리를 해석하는데도 그 해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보다 그 해석이 그 당사자에게 어느 만큼 효과적이냐에 역점을 둔다. 정신적인 어떤

람이 각시 탈을 쓰면 각시의 역할을 하며 왕의 탈을 쓰면 왕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개의 탈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李符永, 前掲書, p.81

47) C. 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bten* (Zurich: Rascher Paperback, 1963), p.81,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86에서 재인용.

48) 傳雷는 迅雨의 필명으로 유명한 번역가이자 문예 이론가로 프랑스에서 서구 문예사와 예술 이론을 전공했다.

49) 傳雷, 『萬象』 “論張愛玲小說”, (1944)

50) 1인칭 전지적 시점과 전통 設書방식과 시작과 끝의 呼應관계

51) 복합이미지 수법

것이 작용할 때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⁵²⁾

융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집단적 무의식의 존재인 ‘원형론’이며, 융의 리비도 개념은 중립적인 정신적 에너지로 프로이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인간은 이성이 존재하기에 본능적이라며 성욕충동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건강한 정신의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융의 학설 중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振保, 烟癩. 嬌蕊에 대해 『기초 개념들의 상호연관관계』⁵³⁾에 의한다.

집단의식			
	페르조나(男)	페르조나(女)	
개인의식	자아(男)	자아(女)	
개인무의식	그림자(男)	그림자(女)	콤플렉스
	아니마(女)	아니무스(男)	
			원형
집단무의식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원주이며, 그 원의 중점, 즉 이들 모두의 중심을 자기(self)라고 한다.⁵⁴⁾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원형으로서의 투사되어 경험이 되어 인지되는 예로 이성간의 사랑에서 강렬한 황홀감을 일으키는 것과 상대방이 둘도 없는 賢者로 또는 英雄으로 인식 될 때, 원형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정이 반드시 황홀한 신비감만이 아니라는 것, 외경의 마음이 더욱 강렬하고 강박적이고 마력적이라는 특징, 물질이 곧잘 아니마 원형의 투사를 받는다는 것과 남성이 신비스러운 속성을 띤 초인적 존재라는 것, 남성은 결혼만 하면 어린애

52) A. Jaffe, *Erinnerungen, Traume, Gedanken von C.G Jung*, (Zurich: Rascher Verlag, 1962), p.354,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26에서 재인용.

53) 개념이해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모든 개념들이 역동적으로 상호관계에 있지만, 개념들 간의 구분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내용을 편의상 이름 붙여 부른다.

54) 이보섭, 『分析心理學의 기본개념』, (한국: 한국 융 연구원, 2002) p.31

같아지고 감상적이고 의존적이 아니면 폭군적이며 예민하거나, 인색하여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며 모성애의 의존이라는 점에 다름이 없다는 것과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감정과 의견의 충돌에 관해 振保, 烟嬾, 嬌蕊에 대해 考察 해본다.

第 2 章. 張愛玲 生涯

張愛玲 作品의 시기 구분에는 연구자에 따라 달라 여러 의견이 있다.

王劍叢의 「張愛玲上海時期小說創作批評」에서는 작가의 창작 거주지를 통해 上海시기, 홍콩시기, 미국시기 세 시기로 구분하고, 에드워드 건의 『張愛玲「傳寄」연구』에서는 張愛玲의 소설을 환경의 힘이 인물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소설과 인물의 의지가 환경을 지배한 소설의 두 부류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金宏達의 『張愛玲文集』 제1권 「編者前言」에서는 창작 시기의 변화는 창작 경향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첫 번째 시기를 1943-45년 항일 전쟁이 승리 할 때의 시기로 張愛玲의 창작 생애 중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두 번째 시기를 1945년 항일 전쟁이 승리한 때부터 1952년 張愛玲 이 홍콩을 떠나기 전까지 시기로, 세 번째 시기를 張愛玲가 1952년 홍콩에 도착한 후부터 1955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네 번째 시기를 미국에 도착한 후부터 張愛玲가 사망하기까지의 네 시기로 나누어 놓고 있다.

하지만 어느 연구자든 1943년-45년까지는 張愛玲의 작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한 구분으로 짓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張愛玲의 성장시기와 상해 활동시기, 상해를 떠나 홍콩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사망 할 때까지의 세 시기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成長期

張愛玲은 1920년 上海 河北 豐潤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張瑛이다. 명문 집안의⁵⁵⁾ 후손으로 上海에서 부친 張廷衆과 모친 黃素璟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張愛玲의 부친은 阿片을 피우고 蓄妾을 하는 부패한 귀족 자제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으며 어머니는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식 女性이었다.⁵⁶⁾ 그래서 張愛玲은 中國과 西洋, 新舊 문화가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일찍부터 古典과 西洋 藝術을 接觸하게 되며, 1922년 天津으로 이사를 해서 天津에서 살게 되면서 고문에 흥미를 느껴 학습하게 시작한다.⁵⁷⁾ 1925년 어머니가 유학을 떠나고 6세가 되었을 때부터 습작을 쓰기 시작한다. 1929년 다시 上海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가 유학에서 돌아와 가족이 모여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930년 張愛玲으로 改名한다.⁵⁸⁾ 그러나 1931년 張愛玲이 성마리아 중학교에 입학할 해에 부모는 이혼을 하고 모친이 다시 파리 유학을 떠나버리고 부친은 재혼을 한다. 1932년 11세가 된 張愛玲은 교지에 「不幸的她」를 발표하면서 1933년부터 36년까지 교지 『國光』에 「遲暮」, 「秋雨」, 「理想中的理想村」, 「摩登紅樓夢」, 「牛」, 「霸王別姬」를 발표하는데, 「霸王別姬」는 張愛玲의 조숙한 여성의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작품 안에서 古代의 虞姬와 項羽의 故事를 虞姬가 項羽를 위해 순정을 바치는 형식에서 벗어나 자살을 선택하게 구성함으로써 虞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작가들이 쓴 역사 소설과 견줄 만하다는 평을 받는다.⁵⁹⁾ 1937년 16

55) 張愛玲의 祖父는 張佩綸으로 清朝 名臣이었고, 祖母는 李鴻章의 딸이었다.

于青, 『天才奇女 張愛玲』 (北京: 文化名人逸聞集語總書, 1994), pp.7-9.

56) 于青, 上揭書, pp.9-10.

57) 私塾에서 古文을 배우며, 唐詩, 章回小說 「紅樓夢」 「金瓶梅」 등을 즐겨 읽었으며, 中國 古典文學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 이 시기에 받은 교육은 이후에 張愛玲의 창작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

58) 모친이 성마리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입학 원서를 쓸 당시 張瑛이라는 이름이 부르기 어려워서 Ailen이라는 영어식 발음을 그대로 따서 지었다고 한다.

59) 張愛玲, 『張愛玲文集-第四卷』, (中國: 安徽文藝出版社, 1992), p.451

세에 모친이 上海로 돌아오지만 부친과 살며 성마리아 중학교를 졸업한다. 이 시기에 그녀는 부친과 계모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게 되는데 부친이 張愛玲에게 심하게 매질을 하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였다. 당시 張愛玲은 예민한 시기로 이 시기의 체험은 張愛玲 소설 전반에 흐르는 비애적 분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를 張愛玲은 『流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계모도 아편을 피웠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들은 민국 초기 스타일의 오래된 양옥으로 이사를 갔다 그 집은 원래 우리 집 소유였으며, 나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 집안에는 우리 가족의 많은 추억이 어려 있어 마치 겹겹이 중복되어 현상된 사진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가 흐릿하였다.⁶⁰⁾

(“我的後母也吸阿片，結了婚不久我們搬到一所民國初式樣的老洋屋裏去，本是自己的產業我就是在那房子裏生的，房屋裏有我們家的回憶，像重重疊疊複印的照片，整個的空氣有點模糊。”)

1938년 17세가 되어서야 모친에게로 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1939년 런던대학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런던에 가지 못하고 홍콩대학에 입학하게 된다.⁶¹⁾ 張愛玲이 20살 되는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홍콩이 함락되자 1942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上海로 돌아온다.

60) 張愛玲, 『流言』 (臺北: 皇冠出版社, 1986), p.150

61) 이 시기의 홍콩은 上海 보다 더 복잡하여 유럽 혼혈아, 영국, 인도, 등 부유한 화교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이때 만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은 張愛玲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외국인들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제 2 절. 上海 活動期

이때부터 생계를 위해 창작 활동을 시작하면서 영문잡지 『泰晤士報』에 연극, 영화 평을 집필하고 독일인이 편집하는 영문잡지 『20世紀』에 「中國的生活與服裝」이라는 글을 써서 전통문화에 관한 소개를 시작하며 『西風』잡지에 「我的天才夢」을 실어 13등 명예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 작품이 처녀작으로 간주된다. 1943년~45년 문단에 주목받으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창작이 풍부한 시기로 대부분 작품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1943년 5월 『紫羅蘭』에 첫 번째 소설 「沈香屑；第一爐香」, 6월에 「沈香屑；第二爐香」을 발표하고, 7월 『雜誌』에 「茉莉香片」 8-9월 『萬象』에 「心經」, 10월 『雜誌』에 「傾城之戀」, 11월-12월 『雜誌』에 「封鎖」 「金鎖記」⁶²⁾을 발표하며, 『天地』 『小天地』 『苦竹』 등에 간행물을 계속 연재한다. 1944년 張愛玲은 23세 때 『苦竹』 주편한 15살 많은 胡蘭成과 결혼을 한다. 결혼 전 張愛玲은 上海雜誌月刊社에서 『傳奇』⁶³⁾ 발행하는데 출판 된지 3일만에 매진이 된다. 그때 수록된 작품이 「金鎖記」, 「傾城之戀」, 「茉莉香片」, 「沈香屑；第一爐香」, 「沈香屑；第二爐香」, 「琉璃瓦」, 「心經」, 「年經的時候」, 「花凋」, 「封鎖」가 실린다. 이 작품집은 당시의 가옥, 가구, 복장 등에 대한 묘사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었다는 평을 받는다.⁶⁴⁾ 『傳奇』는 초판 발행 후 한달 만에 재판이 발행되면서 재판 서문을 추가하게 된다. 張愛玲은 이 시기에 결혼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胡蘭成이 上海를 떠나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張愛玲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 다음해 1945년 24세 때 그는 胡蘭成과 이혼을 한다. 胡蘭成은 張愛玲와

62) 「金鎖記」는 중국 소설 사상 가장 위대한 중편소설이라고 극찬을 받게 된다.

63) 『傳奇』는 1940년에 출판된 직후 당시 문단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雜誌社'에서 『傳奇』집 품평 다과회가 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張愛玲 작품에 대한 평은 대체적으로 예술적 기교와 인간의 잠재의식을 서술한 부분에 대한 평이 주류를 이룬다.

64) 金修研, "해파소설의 젠더와 도시소설" 『中國小說論叢』 第18輯, (2003, 9)

결혼하기 전에 『雜誌』 원간에 '評張愛玲'을 신게 되는데 여기에서 張愛玲 창작의 내재의식⁶⁵⁾과 개인주의적 경향⁶⁶⁾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 후 上海 街燈書報社에서 산문집 『流言』 출판하는데, 여기에는 산문 30편이 수록된다. 그리고 胡蘭成과 이혼한다.

이혼 후 산문집 『流言』과 『傳奇』 增訂本이 상해에서 출판되며, 4편의 작품이 추가되는데 이 작품 속에 「紅薔薇與白薔薇」가 수록된다. 「紅薔薇與白薔薇」 발표는 1947년도에 되지만 창작은 결혼 후 남편의 외도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이혼하기 전에 쓰여진다.

『傳奇』 增訂本에 추가 수록된 작품은 「留情」, 「鴻樂禧」, 「紅薔薇與白薔薇」, 「樅花蒸阿小悲秋」 등이다. 1948年(27세) 때에는 “梁京”⁶⁷⁾ 필명으로 『赤報』에 장편소설 「十八春」을 연재한다. 항일전쟁이 승리로 끝난 1949년에 좌파 작가들이 上海로 돌아와 정치적인 선동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이 시기에는 소설을 쓰지 않고 영화 극본 써서 그들의 주목 대상에서 벗어나며, TV 극본 「南北和」 「不了情」 「太太萬歲」를 발표한다.

1950年 ~ 52年 이 시기에 완성되지 않은 장편소설 「連環套」 「創世記」를 창작했고, 중편소설로 「小艾」 「多少恨」를 『赤報』에 발표한다.

65) '그녀는 인생의 공포와 죄악, 잔혹함과 억울함을 적었다. 작품을 읽을 때 비애와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당신과 작가가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66) 張愛玲의 개인주의를 언급하며, '魯迅'과 비교하여 “魯迅이 예리하게 정치를 풍자하고 견책한다면, 張愛玲의 문학은 정치에서 인간에게로 돌아가 더욱 친근하다. 시대는 해체되었고, 張愛玲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롭고 진실하고 안정적인 인생이다.”라고 하였다.

67) 上海가 中國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張愛玲은 “梁京”이라는 필명으로 고쳐서 작가 생활을 계속한다.

第 3 節. 海外 活動期

1952年(31세)에는 홍콩으로 이주하여 번역활동을 하는데 번역작품으로 「老人과 바다」가 있다.

1953年(32세)에 번역작품 「小廬」, 「愛默森選集」을 출판하고, 1954年(33세) 『傳奇』⁶⁸⁾를 홍콩 天風書店에서 「張愛玲短篇小說集」으로 重版했고, 홍콩 미국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今日世界』 청탁으로 반공소설인 「秧歌」 「赤地之戀」을 발표했다.

1956年(35세) 3月 맥도웰 콜로니(Macdowell Colony)의 지원을 받아 뉴 햄프셔(New Hampshire) 주 도시 페테브르그(Peterborough)에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미국 작가 페르디난드 레이어(Ferdinand Reyher)를 만나 8月 뉴욕에서 재혼한다.

1957年(36세) 「五四遺事」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은 깊은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1959年(38세) 샌프란시스코로(San Francisco) 이사하고 영문소설과 영화극본 쓰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1956年~63年 「清場與戰場」 「人財兩得」 「六月新鄉」 「小兒女」 「溫柔鄉」을 창작한다. 1960年(39세)에는 정식으로 미국시민이 된다. 미국시민이 된 후 1961年(40세) 대만을 방문해 1962年(41) 미국으로 돌아간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1963年(42세) 『記者』 잡지에 「重回前方」(A Return to the Frontier)을 발표하고 1966年(45세)에 Miami 대학 駐校 작가가 되어 잡지 『黃冠』에 「怨女」를 발표한다.

1967年(46세) 남편이 사망하고 「十八春」을 「半生緣」으로, 「金鎖記」을 「怨女」로 개작하여 발표하고 소설 「色·戒」, 「談讀書」, 「談讀書後記」를 창작한다.

1968年(47세)에는 黃冠雜誌社에서 『張愛玲短篇小說集』을 출판했는데, 이

68) 『傳奇』와 산문집인 『流言』이 함께 수록된다.

책 안에 산문집 『流言』과 소설집 『傳奇』가 함께 수록되며, 「秧歌」가 재판 발행된다.

1969年(48세) 대만에서 「十八春」이 「半生緣」이란 제목으로 출판되며, 1969年 ~ 71年(50세) 버클리 대학 中國研究中心으로 이직하여 이곳에서 中共專門用語 방면 연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1977年(56세) 2만 글자에 달하는 「紅樓夢魔」를 출판한다.

1978年(57세) 「色·戒」를 포함한 마지막 세 편의 단편소설이 『黃冠』에 발표되며, 1983年(62세) 「茫然記」를 출판한다. 1984年(63세) 上海 잡지 『收穫』에 「金鎖記」가 다시 발표된다.

1986年(65세) 2月 人民文學出版社에서 『傳奇』 重排本이 출판되는데 내용은 앞 판본과 같으나 배열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⁶⁹⁾

1987年(66세)에 「餘韻」을 출판하며 대만 『聯合文學』에서 「張愛玲專號」를 출판한다. 1988年(67세)에는 『續集』이 출판되었고, 1991年(70세) ~ 94年(73세) 黃冠出版社에서 『張愛玲全集』이 출판되었다.

1994年(73세) 마지막 작품인 「對照記」를 발표하고, 中國時報 特別成就賞을 수상하며, 1995年(74세) 9月初 웨스트우드(Westwood)에서 사망했다.

69) 「金鎖記」 「傾城之戀」 「茉莉香片」 「沈香屑；第一爐香」 「沈香屑；第二爐香」 「琉璃瓦」 「心經」 「年經的時候」 「花凋」 「封鎖」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第 3 章. 作品의 主題 分析

第 1 節. 男性優越意識과 女性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 중심적 가치관은, 남성이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여성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 이미지는 여성의 현실성을 무시한 채 천사 아니면 마녀로 양극화되어 있다.⁷⁰⁾

가부장제란 사회제도와 문화적 차원의 기제를 매개로 하는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의미한다. 베버는 남자들이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통해 사회를 지배하는 정부 체제를 언급하는데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부장제 이론이 주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오면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가르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⁷¹⁾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안주하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賢母良妻'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은 여성에게 때로는 抑壓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자유를 동시에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일면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은 자본과 가부장의 각축은 거대한 담론과 과도한 일반화를 경계한다.⁷²⁾

이러한 일련의 관계들은 복잡한 남성의 시각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배자의 사회학' 속에서 주요 요소들이 된다. 즉 나(我)는 지배자-여기서는 남성을 지칭하는 성별계급-가 종속자 즉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시각에 어떤 일반 원칙 혹은 규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칙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현재의 남성들 저항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그중 몇 가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70) 안혜련, 『페미니즘의 거울』 (서울: 인간사랑, 2001), p.97

71)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p.58

72) 이숙진, 『글로벌 자본과 로컬 여성』 (서울: 푸른사상, 2004), pp.6-30.

이성에 대한 남성 혹은 여성의 관찰은 그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나, 서로의 삶의 이면을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남성의 일이 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훨씬 적은 반면 남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자 하는 동기화가 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여성의 행동이 남성이 하고자 하는 것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성이 행하는 거의 모든 것은 여성이 해야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성은 되도록 예리하게 남성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동기화 된다.

다른 지배자와 마찬가지로 남성도 그들에게 기득권을 주는 체제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태도 패턴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의 전 사회구조가 대부분의 경쟁에서 작지만 누적적이고 중국에는 막대한 이득이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 결과 남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실제로 선천적인 우월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월한 사람, 즉 남성은 종속자의 재능이나 업적들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남성은 여성의 성장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하는 지혜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이 뛰어난 재능을 보인 경우 탁월함은 별난 예외로 취급되었으며, 현재에도 그렇게 여겨지곤 한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성은 자기들에 대한 존경, 이득, 기회가 조금만 손상되어도 그 손실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의 이익이나 기득권의 유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紅薔薇與白薔薇」소설에서 振保 역시 그렇다.

振保는 결코 체면을 세우지 못하고 한차례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걸어 들어가 독보와 머리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다.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이고 차분하게 앉아 잠시동안 세상일과 증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말하는 것도 피곤해지자 일찍 자기 위해 혼자 먼저 위로 올라갔다.

(振保並不冲台拍凳,走進去和篤保點頭寒暄,燃上一支香烟,從容坐下談了一會時局與股票,然後說累了要早点睡,一個人先上樓去了.)⁷³⁾

篤保가 간 후, 振保는 烟癮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릴 들었다. 그녀가 막 방문을 들어 서자 그는 작은 탁자 위에 있던 스탠드와 보온물병을 쓸어 바닥으로 던져 버렸다. 곧 맑은 소리와 함께 그것들은 산산조각으로 부숴 지고 말았다. 그가 허리를 굽혀 스탠드의 쇠 받침대를 집어 들고는 전선과 함께 그녀를 향해 던지자, 그녀는 다급히 몸을 돌려 밖으로 피하였다. 振保는 그녀를 완전히 제압하여 이겼다고 여기며 득의양양하여 그곳에 서서 소리없이 웃었다.....

(篤保走了之后,振保聽見烟癮進房來,才踏進房門,他便把小櫃上的台燈熱水瓶一掃掃下地去,豁朗朗跌得粉碎.他彎腰揀起台燈的鐵座子,連着電線向她擲過去,她急忙返身向外逃.振保覺得她完全被打敗了,得意之極,立在那里無聲地笑着,靜靜的笑從他眼里流出來,像眼泪似的流了一廂.)⁷⁴⁾

「紅薔薇與白薔薇」에서 烟癮와 篤保가 대화를 하다 振保를 보고 멈추자 체면을 세우지 못하고 의자를 치며 들어가는 것과 烟癮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기득권의 유지가 예전 같지 않음에 대한 태도로 보여준다.

한국에서 현모양처의 원형은 '단군신화'의 '웅녀'에서 시작된다. 금기와 제약을 통과해서 어머니가 되는 웅녀를 통해 여성이 진정으로 여성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성성에 있음을 상징한다. 호랑이는 영원히 동물로 남는 데 반해, 웅녀가 된 곰은 아이 낳기를 행함으로써 순종, 희생, 기다림, 수동성이라는 모성성의 원리를 규정하게 되는 것처럼 모성성의 신화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려는 욕망을 금기하도록 하는 여성 억압 논리의 근간이 되곤 한다. 그래서 여성이 주체적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가치관 사이의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張愛玲의 소설은 그 대부분이 '집'을 주요 무대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73) 張愛玲, 前揭書, p.71

74) 張愛玲, 前揭書, p.71

'집'이란 우선 말할 나위도 없이 인간의 일상 생활이 영위되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에 바탕을 둔 삶의 본원적 가치로서의 관념적 공간이기도 하며,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 망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⁷⁵⁾ 인간에게 있어 집은 자아를 형성하고, 삶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는 문학에서 집은 단순한 배경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그 자체를 형성화하기 위한 상징적 매체가 될 수도 있다. 張愛玲 작품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립적 관계, 혹은 가족간의 단절감을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제재는 연애와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녀 관계의 설정이다. 결혼이라는 관습은 인간의 진정한 자아 구현과는 거리가 먼 상투적인 삶의 한 패턴일 수도 있다.⁷⁶⁾

75) 김정자,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집 그리고 가족의 문제』, (서울: 우리문학사, 1992) pp.21-23

76) 백영길, 『中國 抗戰期 리얼리즘 文學論爭 研究』(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p.248

第 2 節. 紅薔薇와 白薔薇의 相互關係

「紅薔薇與白薔薇」의 제목처럼 홍장미와 백장미의 묘사에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장미의 傳說⁷⁷⁾처럼 홍장미로 상징되는 嬌蕊와, 백장미로 상징되는 烟嬋를 비교해보면, 嬌蕊는 비탄을 받게 되고, 烟嬋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내로 인식된다. 비탄을 받던, 좋은 인식이 되던 嬌蕊와 烟嬋는 남성으로 인해 모두 상처를 받게 된다. 嬌蕊가 振保와 헤어진 후 세월이 지나 振保를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嬌蕊가 振保에게 하는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당신에게서 비로소 배웠던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비록 고통스럽긴 했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 후에도 여전히 사랑했고, 그러기에……”⁷⁸⁾

(“是從你起, 我才學會了, 怎樣, 愛, 認真的……. 愛到底是好的, 雖然吃了苦, 以後還是要愛的, 所以…….”)

“맞아요. 나이가 어리고, 예뻐던 시절에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딪치는 것은 모두 남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은 뒤에는, 남자말고도 언제나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는데……”⁷⁹⁾

77) 홍장미와 백장미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원한 아름다움과 신비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비너스가 쥬피터와 태양신 디오네에 의해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날 때, 비너스는 자신도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땅에 장미를 꽃피우게 한다. 그러자 신들은 신의 술인 네크타르를 따라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거품 속에서 그녀가 태어날 때 장미가 함께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성모 마리아가 장미꽃 봉오리 위에 베일을 덮어 두자 그 밑에 있던 장미가 모두 하얗게 되고, 그 이후 그 장미의 뿌리에는 흰 꽃밖에 피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다른 하나로는 비너스가 무신 마루스보다도 아도니스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마루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너스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도니스를 땅에다 던져 버린다. 애인을 구하려고 달려든 비너스는 흰장미 숲에 쓰러져 가시에 찢리게 되는데 이 때 흘러나온 그녀의 피가 백장미를 붉게 물들였다. 그래서 홍장미는 사랑의 꽃이자, 동시에 비탄과 저주의 꽃이기도 하다.

www. daum. co. kr 참조.

78) 張愛玲, 『張愛玲作品集』(中國: 南海出版公司, 2004), p.63

79) 張愛玲, 上揭書, p.63.

(“是的，年紀輕，長得好看的時候，大約無論到社會上做什麼事，碰到的總是男人。可是到後來，除了男人之外總還有別的……總還有別的……”)

嬌蕊의 고백 투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사랑했던 남자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嬌蕊와 振保의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들이었지만 嬌蕊만이 사람들에게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烟癩는 振保를 용서하며 감싸준다. 아마도 딸아이 慧英이를 위해 振保의 행동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했을 것이다. 만약 嬌蕊가 진지하지 못한 사랑을 하였다더라도 아이를 가졌다면 嬌蕊 또한 남성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烟癩처럼 힘들지만 남성의 모든 걸 감싸줄 수 있었을 것 같다. 홍장미와 백장미는 남성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도 결국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로 끝을 맺게 되고, 振保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설은 끝맺는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남성인 振保였다.

「紅薔薇與白薔薇」소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한 명은 거룩하고 깨끗한 아내이고, 한 명은 열렬한 정부로—보통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처럼 정절과 열렬의 두 글자로 분리하여 이야기해왔다. 어찌면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두 명의 여인이 최소한 있었을 것이다. 홍장미를 아내로 얻어서 오랜 시일이 지나 붉은 색은 벽 위의 모기 피 흔적으로 변해버리고, 흰색은 여전히 “침대 앞에서 보는 밝은 달빛”으로 변해버린다. ; 흰장미를 아내로 얻으면 “흰색은 옷 위에 묻은 한 개의 밥 알갱이가 되어버리고 홍색은 도리어 명치 위의 사마귀가 되어버린다.⁸⁰⁾

(一个是聖潔的妻,一个是熱烈的情婦-普通人向來是這樣把節烈两个字分開來講的. 許每日个男子全都有過這樣的兩個女人,至少兩個娶了紅玫瑰,久而久之,紅的變了牆上的一抹蚊子血,白的還是“床前明月光”;娶了白玫瑰,白的便是衣服上的一粒飯粘子,紅的却是心口上的一顆朱砂痣.)

80) 張愛玲, 前揭書, p.36

남성의 이기적인 양면성을 알 수 있는 예문이다.

張愛玲은 『流言』과 『短篇小說文集』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지쳐있고, 현대 혼인제도 또한 불합리하다.⁸¹⁾

(現代人多是疲困的, 現代結婚制度又是不合理的.)

그들은 마치 생활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다. 숭고한 이상과 목표가 없다. 인생에 대한 이러한 실존주의적 인식은 독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진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독자는 스스로 그들 자신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검토하게 된다.⁸²⁾

(他們似乎都是爲生活而活下去, 沒有崇高的理想和目標. 這種對人生的存在主義式的看法, 使讀者不期然地深索一下‘人是甚麼’這古老問題. 從這一個層次來設, 讀者會自我檢討一下他們自己對婚姻的看法.)

나는 장열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장함을 좋아하며, 처량함을 더욱 좋아한다. 장열함은 힘만 가지고 있어, 아름다움은 없고 마치 감정이 결핍된 것 같다. 비장함은 붉은 색과 녹색의 배색 같이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자극성은 역시 啓發性 보다 크다. 처량함에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까닭은 그것이 마치 푸른 녹색에 연분홍 색을 배치하여 울긋불긋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듯 하기 때문이다.⁸³⁾

(我不喜歡壯烈. 我是喜歡悲壯, 更喜歡蒼涼. 壯烈只有力, 沒有美, 似乎缺乏人性. 悲壯則如大紅大綠的配色, 是一種強烈的對照. 但它的刺激性還是大於啓發性. 蒼涼之所以有更深長的回味, 就因爲它像蔥綠配桃紅, 是一種參差的對照.)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작가의 말처럼 삶은 대조로 이루어져 여성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81) 張愛玲, 『流言』, (臺灣: 花城出版社, 1997), p.179

82) 張愛玲, 『張愛玲短篇小說論集』(臺灣: 遠景出版社, 1983), p.1

83) 張愛玲, 上揭書, p.174.

第 4 章. Anima와 Animus로 보는 「紅薔薇與白薔薇」

제 1 절. Anima 側面과 振保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에서 남성과는 다른 심리를 지니고 있는 여성은 남성이 전혀 눈뜨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원천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영감(靈感, Inspiration)을 의미한다. 남성을 훨씬 능가라는 여성의 예감(豫感)능력은 남성에게 유익한 경고를 주며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둔 여성의 감정은 남성에게 그가 지니고 있는 별로 개인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감정으로는 찾기 힘든 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⁸⁴⁾

가령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누가 보아도 남자답다고 평가받는 남성이 집에 돌아오면 유약하고 잔소리가 많고 짜증을 부리며 소심하고 때로는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

작품 속에서의 振保가 嬌蕊를 만나 질투하는 것, 振保가 烟癮에게 센스가 없다고 화를 내는 것 등,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써, 소설에서의 묘사들은 다음과 같다.

振保는 그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당시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담긴 감정이 참기 어려운 질투했다는 것을 결코 몰랐다. 嬌蕊가 “당신은? 당신은 좋아요?” 라고 말했다. 振保는 그의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한두마디로 정리하여 간단히 표현하기 위한 적당한 말을 헤아리는 중이었다. 고개를 들어 버스 운전사가 앉아있는 좌석 오른쪽의 돌출된 작은 거울에 비쳐진 자신의 얼굴을 보니, 매우 평온해 보였다. 차체가 덜커덕거리며 요동을 치자 거울 안의 얼굴도 따라서 흔들거리며 불안해 보였지만, 그 떨림은 정말 기이하게도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어,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정말 떨리기 시작했다. 거울을 통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

84) C. 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bten*, (Zurich: Rascher Paperback, 1963), p.81,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86에서 재인용.

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振保看着她,自己當時並不知道他心頭的感覺是難堪的妬忌.嬌蕊道:“你呢?你好麼?”振保想把他的完滿幸福的生活歸納在兩句簡單的話里,正在斟酌字句,抬起頭,在公共汽車司機人座右突出的小鏡子里看見他自己的臉,很平靜,但是因為車身的嗒嗒搖動,鏡子里的臉也跟着顫抖不定,非常奇異的一種心平气和的顫抖,像有人在他臉上輕輕推拿似的.忽然,他的臉真的抖了起來,在鏡子里,他看見他的眼淚滔滔流下來,爲什麼,他也不知道.)⁸⁵⁾

振保가 한탄하듯 바라보다 한줄기 바람처럼 달려가 빼앗아 돌아오며 한소리 들었다. : “사람이 미련하면 쉬운 일이 없지!” 烟癩 얼굴 위에 그녀의 비친하면서 원망하는 듯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미소를 띄우며 웃자, 자기도 웃으면서, 거듭 독보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보면서 남편이 말하는 농담을 못 알아 들었을 까봐 걱정하였다.

(振保恨恨地看着,一陣風走過去奪了過來,唉了一聲道:“人笨事皆難!”烟癩臉上掠過她的婢妾的怨憤,隨即又微笑,自己笑着,又看看篤保可笑了沒有,怕他沒聽懂她丈夫說的笑話.)

86)

욕조 안쪽에 무슨 꽃인지 알 수 없는 화분이 놓여졌는데, 활짝 핀 것이嬌蕊처럼 선정적이었으며, 비록 비에 젖지는 않았지만 마치 물기를 머금고 있는 듯 했다. 세숫대야를 욕조 바깥에 놓고 振保는 욕조의 가에 걸터앉아 허리를 굽혀 발을 씻었다. 뜨거운 물이 화분에 튕까봐 조심하며, 머리를 숙였을 때, 맑은 향을 맡을 수 있었다. 그는 한쪽 발을 무릎 위로 놓고, 수건으로 발가락을 하나 하나씩 닦아 말리다가 갑자기 자신이 안타깝고 가련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몸을 보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듯 가슴깊이 슬프고 쓰라려 쓸데없이 자신을 망쳤다고 느끼게 되었다.

(浴槽里放着一盆不知什麼花,開足了,是嬌蕊的黃,雖沒淋到雨,也像是感到了雨氣,脚盆就放在花盆隔壁,振保坐在浴槽的邊緣,彎腰洗脚,小心不把熱水濺到花朵上,低下頭的時候也聞見一點有意無意的清香.他把一條腿擱在膝蓋上,用手巾揩干每一個脚趾,忽然疼惜自己起來.他看着自己的皮肉,不像是自己在看,而像是自己之外的一个愛人,深深悲傷着,覺得他白糟踏了自己.)⁸⁷⁾

85) 張愛玲, 『張愛玲作品集』(中國:南海出版公司, 2004), p.63.

86) 張愛玲, 上揭書, p.64.

손을 유리창에 대자 振保는 자신의 손과 자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왔다.

(振保把手抵着琉璃窗,清楚地覺得自己的手,自己的呼吸,深深悲傷着.)⁸⁸⁾

이와 같이 내적 인격이 방치되어 있을 때 외부에 투사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과의 감정 교류를 통해 최소한 투사라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무의식에 에너지의 정체가 생긴다. 의식이 무의식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무의식의 콤플렉스는 대상적으로 의식에서 에너지를 빼앗고 힘을 더하여 의식을 압박하게 된다.⁸⁹⁾

振保는 결코 체면을 세우지 못하고 한차례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걸어 들어가 독보와 머리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다.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이고 차분하게 앉아 잠시동안 세상일과 증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후 말하는 것도 피곤해지자 일찍 자기 위해 혼자 먼저 위로 올라갔다.

(振保並不沖台拍凳,走進去和篤保點頭寒暄,燃上一支香烟,從容坐下談了一會時局與股票,然後說累了要早點睡,一個人先上樓去了.)⁹⁰⁾

篤保가 간 후, 振保는 烟癮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릴 들었다. 그녀가 막 방문을 들어 서자 그는 작은 탁자 위에 있던 스탠드와 보온물병을 끌어 바닥으로 던져 버렸다. 곧 맑은 소리와 함께 그것들은 산산조각으로 부숴 지고 말았다. 그가 허리를 굽혀 스탠드의 쇠 받침대를 집어 들고는 전선과 함께 그녀를 향해 던지자, 그녀는 다급히 몸을 돌려 밖으로 피하였다. 振保는 그녀를 완전히 제압하여 이겼다고 여기며 득의양양하여 그곳에 서서 소리없이 웃었다. 조용한 웃음이 그의 눈에서 흘러 나왔으며 마치 눈물처럼 얼굴 가득 흘러내리며 퍼져 나갔다.

(篤保走了之後,振保廳見烟癮進房來,才踏進房門,他便把小櫃上的台燈熱水瓶一掃掃下地去,豁朗朗跌得粉碎.他彎腰揀起台燈的鐵座子,連着電線向她擲過去,她急忙返身向外逃.振保覺得她完全被打敗了,得意之極,立在那里無聲地笑着,靜靜的笑從他眼里

87) 張愛玲, 前揭書, p.69.

88) 張愛玲, 前揭書, p.69

89) 李符永,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2004), p.223

90) 張愛玲, 前揭書, p.71

流出來，像眼淚似的流了一廂.)⁹¹⁾

용은 고대철학의 음양설을 비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용은 ‘아니마’, ‘아니무스’는 어디까지나 경험적 관념이며 따라서 철학적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기를 강조한다. 원형으로서의 아니마, 아니무스는 그것이 투사되어 경험될 때 잘 인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로 이성간의 사랑에서 강렬한 황홀감을 일으킨다.⁹²⁾

振保가 嬌蕊와 마주쳤을 때를 예로 볼 수 있다.

振保는 어두운 중에서 매우 흔들렸으며, 갑자기 흥분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다.

(振保在黑暗中十分震動，然而徒然興奮着，她已經不在了.)⁹³⁾

그리고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현자(賢者), 또는 영웅으로 인식될 때이다. 振保가 동료나 친구와 가족들에게 베푸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振保는 결혼 한 이래로 외계의 슈퍼맨이라 여겨 모친을 비롯해서 모두 당연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야 된다고 여겼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희생했던 자세한 상황을 아는 것 같았지만, 설사 자세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그에게 약간의 경의와 따뜻한 일상을 빚지고 있다고 여겼다. 다른 사람들이 줄곧 이를 위해 그가 좋다고 말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았는지 불만스러워 하였다. 때문에 그 밖의 좋은 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런 좋은 일들은 원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저절로 생겼다.

(振保自從結婚以來，老覺得外界的一超人，從他母親起，都應當拍拍他的肩膀獎勵有加。像他母親是知道他的犧牲的詳情的，即使那些不知底細的人，他也覺得人家欠着他一点敬意，一点溫情的補償。人家也常常爲了這個說他好，可是他總嫌不够，因此特別努力

91) 張愛玲, 前揭書, p.71

92) 李符永, 『분석 심리학』(서울: 일조각, 2004), p.88

93) 張愛玲, 前揭書, p.50

去做分外的好事，而這一類的好事向來是不待人兜攬就黏上身來的。)94)

그는 동생 篤保를 대신하여 몇차례 빚을 갚아 주고, 결혼을 시켜 집안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하였다. 그밖에 그에게는 문제가 많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를 챙겨주어야 하는 이유로 독신이거나 상처를 한 친구들에 대해 특별히 친절하게 돌봐 주었으며,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해주고 돈을 마련해 주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그는 여동생을 내륙에 있는 한 학교에 교사로 소개시켜 주었다. 들리는 소문에 그 쪽의 남자 선생들은 모두 대학을 갓 졸업하였으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은 고생을 참지 못하고 반년의 계약을 채우지 못한 채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상해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딸을 안타깝게 여겨 振保를 닦하며 너무 경솔했다고 나무랐다.

(他替他弟弟篤保還了几次債，替他娶親，替他安家養家。另外他有个成問題的妹妹，爲了他的緣故，她對於獨身或喪偶的朋友格外熱心照顧，替他們謨事，籌錢，無所不至。后來他費了許多周折，把他妹妹介紹到內地一个學校里去教書，因爲聽說那邊的男教員都是大學新卒業，還沒結婚的。可是他妹子受不了苦，半年的合同沒滿，就鬧脾气回上海來了。事后他母親心疼女兒，也怪振保太冒失。)95)

이날 공교롭게도 동료 한 명도 차가 필요했다. 振保는 원래 특히 노는데 있어서 희생정신이 가장 강했다.

(這天恰巧有个同事也需要汽車，振保向來最有犧牲精神，尤其在娛樂上。)96)

여기에는 언제나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의 일방적 또는 상호투사가 일어나고 있다. 남성은 그녀에게서 현실적인 여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에서 투사된 여성상(女性像)을 보고 있는 것이며, 여성은 그에게서 신화에 나오는 영웅상, 성자(聖者)상 같은 것을 보고 있게 된다.97)

원형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정은 반드시 황홀한 신비감만이 아니다. 그것은

94) 張愛玲, 前揭書, p.65

95) 張愛玲, 前揭書, pp.65-66

96) 張愛玲, 前揭書, p.54

97)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88

때로 강렬한 혐오감,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⁹⁸⁾

嬌蕊와의 관계에서 선배(사공)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때로는 그녀의 남편이 몇 시에 오는지 말하였다. 그 말을 언급하자 振保의 얼굴 위에는 바로 어두운 미소가 드러났으며, 눈썹꼬리와 눈초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전체 얼굴이 제멋대로 아래로 늘어져 마치 대걸레에 붙어있는 누더기 조각과 같았다. 지금의 연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헤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런 범죄심리로써 자신을 자극하였고 더욱 거칠게 사랑하였다.

(也有時候說到她丈夫几時回來. 提到這個, 振保臉上就現出黯敗的微笑, 眉梢眼梢往下掛, 整個的臉拉雜下垂像拖把上的破布條. 這次的戀愛, 整個地就是不應該, 他屢次拿這犯罪性來刺激他自己, 愛得更凶些.)⁹⁹⁾

또는 외경의 마음이 있기도 한데, 일상적인 부정적 감정보다는 더욱 강렬하고 강박적이고 매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홍장미와 결혼 할 수 없는 이유와 모친의 헌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들 수 있다.

振保는 그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비범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또한 약간의 의심도 들었다. 단지 남자만 한 명 이곳에 있어도 그녀는 분명 바로 다르게 할 것이다.

(振保看着她, 一方面得意非凡, 一方面又有点懷疑, 只要有個男人在這裏, 她一定會兩樣些.)¹⁰⁰⁾

그러나 그 날밤 그녀의 침대에서 잠을 자며, 그 날 길에서 만났던 애쉬부인을 떠올렸다. 그가 에버딘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어떻게 그를 위하여 송금하였고 소포를 보냈는지를 떠올리며 지금이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보답 할 시기라 여겼다.

(然而那天晚上, 睡在她床上, 他想起路上碰見的艾許太太, 想起他在愛丁堡讀書, 他家

98) 李符永, 前揭書, p.88

99) 張愛玲, 前揭書, p.53.

100) 張愛玲, 前揭書, p.55

里怎樣爲他寄錢，寄包裹，現在定是報答他母親的時候。)101)

만약 하루 종일 그녀와 시끄럽게 떠들어댄다면, 또한 할 일이 아니며 남자의 기개도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若是成天同她吵吵鬧鬧呢，也不是个事，把男人的志气都磨儘了。)102)

振保는 저녁에 자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안위했다.嬌蕊는 장미와 다른 제멋대로 구는 유부녀로서 가장 자유분방한 부인이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振保一晚上翻來覆去的告訴自己這是不妨事的，嬌蕊與玫瑰不同，一个任性的有夫之婦是最自由的婦人，他用不着對她負作何責任。)103)

이런 감정이 이성에게서 느껴져서 그 이성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감정 관계를 갖게 될 때 거기에는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의 투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원형이 반드시 밖에 있는 어떤 인물에만 투사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 시인은 자기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화폭이나 작품 속에 형상화한다. 반드시 사람으로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를 새, 비둘기, 학, 혹은 태양과 달 속에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을 그려내어 그것이 그들 작품의 독특한 특질을 이루게 된다. 아니마, 아니무스 또한 이념에 투사되기도 하고 물질에 투사되기도 한다. 그 이념이 계몽사상이든, 낭만주의든, 그것이 그의 아니마 또는 그녀의 아니무스 투사의 대상이 되면 그 이념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열병 환자처럼 그들은 그 주의와 사상에 광신적으로 집착하게 된다.104)

원형이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므로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도 거기에 적합한 범상하지 않은 인물이 밖에 나

101) 張愛玲, 前揭書, p.57

102) 張愛玲, 前揭書, p.45

103) 張愛玲, 前揭書, p.50

104) 李符永, 前揭書, p.88

타났을 때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집단적으로 ‘심상’(心像, Seelenbild)을 투사하는 결과를 빚는다.

물질은 곧잘 아니마 원형의 투사를 받는다. 그것은 모체(母體, Matrix)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알코올-우리는 술을 주정(spiritus alcoholicus)이라 부른다-일 수도 있고 지극히 사사로운 물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물질은 아니마의 입사감이 닿을 때 평범한 물질을 떠나 마력(mana)을 지닌 것으로 변하여 인간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봉하게 된다.¹⁰⁵⁾

상쾌함이 절정에 도달하면, 마치 그에 대해 한눈에 환히 알아 볼 수 있는 것 같다. 설령 그의 눈이 성실한 사람의 눈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의 안경조차도 증표로 여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爽快到極點，仿佛他這人完全可以一目了然的，即使沒有看准他的眼睛是誠懇的，就連他的眼鏡也可以作為信物。)¹⁰⁶⁾

그는 여전히 유쾌하게 바빴지만, 점점 피곤함을 드러냈으며, 양복 위의 구김살조차도 조금은 피곤하게 웃는 것 같았다.

(他還是興興頭頭忙着，然而漸漸顯出疲乏了，連西裝上的含笑的皺紋，也笑得有点疲乏。)¹⁰⁷⁾

융은 모성원형(Mutterarchetypus)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모성원형상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다. 모성원형이란 비단 개인적인 모성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신화 속의 고귀한 여신(女神)상, 대지(大地)의 곡신(穀神) 데메터와 그녀의 딸이며 지하세계의 여신인 페르세포네-코레(소녀)persephone-Kore의 관계에서 보는 여신, 어머니-애인(Muttergeliebte)으로서의 키벨레-아티스(Kybele-Attis)형 혹은 딸 애인으로서의 여신, 그리고 또한 빛과 지혜의 처녀

105) 李符永, 前揭書, p.90

106) 張愛玲, 前揭書, p.36

107) 張愛玲, 前揭書, p.62

소피아(Sophia)등으로 나타난다. 비단 이런 인격상(人格像)뿐 아니라 낙원, 교회, 대학, 도시, 나라, 땅, 숲, 나무, 샘, 우물, 동굴, 그릇으로서의 꽃, 장미나 연꽃, 마법의 원(圓)등 많은 모성 원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용은 모성원형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 모성콤플렉스(Muttrtkomplex)의 병리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¹⁰⁸⁾ 입사식(入社式)과 같은 모성으로부터의 효과적인 극복 단계가 특별히 제도화되지 못한 동서의 이른바 ‘문명사회’의 현대인들은 모성상을 그대로 부인에게 전이한다.

振保가 모친이 불로 요리 한다던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아픔을 곳곳이 참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嬌蕊 쪽으로 향하여 웃으며 말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불을 사용하여 요리를 만드는데 대단히 잘 하신다. 우리 모친과 같은 분은 참으로 보기 드물다고 나는 늘 말했지!” 왜냐하면 가슴속으로 수년간의 고되고 슬픈 일을 힘들게 참고 견어오셨기에, 그는 매번 홀어머니께서 언제나 아무리 속상하고 못견딜 지경에 이르더라도 비록 미소는 지우셨지만 마음이 큰 바위처럼 굳어져 의지가 굳은 “무거운 마음속” 이라고 찬양하였다.

(他轉向嬌蕊笑道：“我母親常常燒菜呢，燒得非常好。我總是說像我們這樣的母親真難得的！”

因爲里面經過這許多年的辛酸刻苦，他每次贊長揚他的寡母總不免有点咬牙切齒的，雖然微笑着，心變成一快大石頭，硬硬地“秤胸襟。”)¹⁰⁹⁾

“내가 차가 있으니 언제 한번 일요일에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江灣에 가서, 나의 모친이 만드신 중국 간식을 먹어요.”

(“哪一个禮拜天我有車子，我來接你們几位到江灣去，吃我母親做的中國點心。”)¹¹⁰⁾

108) 李符永, “Jung의 모성상과 모성콤플렉스론”, 『심성연구』, 2, no.2 (1987), pp. 73 - 88

109) 張愛玲, 前揭書, p.55

110) 張愛玲, 前揭書, p.56

남성은 결혼만 하면 어린애 같아지고 감상적이고 의존적이 아니면 폭군적이며 예민하거나, 인색하여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데, 후자 즉 폭군적 변모는 바로 전자, 비굴한 수동성과 종이 한 장 차이이며 모성애의 의존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다.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인류가 조상 대대로 이성애 관해서 경험한 모든 것의 침전물이다. 그것은 남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경험의 총화이며 여성에서 남성에 대한 경험을 통틀 것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인간 정신 속에 전승된 여성적 요소, 전승된 남성적 요소이다. 이리하여 남성에서의 아니마는 '기분'(Mood, Launen), '정동'(Emotion)으로 나타나고 아니무스는 '생각', '의견'으로 나타난다.¹¹¹⁾

남성의 시선은 여러 가지 외계의 일을 향하며 여러 여성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듯이 보인다. 가정은 하나의 지나가는 장소, 남성은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간 바깥 세계로 다시금 치달아간다. 그렇게 밖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그의 마음속의 '아니마'는 개인적인 성격을 띤다.

남성이 외계에 관심을 두면 들수록 그의 아니마는 독선적 감정, 고집 불통의 정열이라는 특징을 띠며 하나의 여성상에 집약한다.¹¹²⁾

振保가 창녀에게 집착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振保는 이즈음 기생집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3주에 한번씩으로 그의 생활은 각 방면에서 모두 매우 규율화 되었다.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여관에 방을 얻어 놓고 기녀를 불러들였다. 집에는 단지 회사일로 소주와 향주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녀의 외모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까무잡잡하고 통통한 여인을 좋아하는 편이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보다 많은 굴욕을 주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장미와嬌蕊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振保這時候開始宿娼，每三个禮拜一次—他的生活各方面都很規律化的.)

111) 李符永, 前掲書, p.92-93

112) 李符永, 前掲書, p.93

和几个朋友一起，到旅館里開房間，聽女人，對家里隻說是爲了公事到蘇杭去一趟。他對於妓女的面貌不甚挑剔，比較喜歡黑一点胖一点的，他所要的是豐肥的屈辱。這對於總前的薔薇與王嬌蕊是一種報復，但是他自己並不肯這樣想。)113)

아니마가 의식되지 않아 미분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원시적인 감정과 통하게 된다. 그것은 침착하고 이성적임을 자랑하는 남성으로 하여금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114)

烟癮가 이겼다는 것으로 振保가 생각하며 振保어머니가 이사가 버린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행히 振保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적절히 하여 크게 다툴 일은 없었지만, 모친이 버럭 화를 내며 강만으로 옮겨가 버리자, 振保는 부인에게 대단히 실망하게 되었다. 원래 그녀가 온순한 성격이라 여겨 결혼하였지만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모친도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가 버리면 사람들이 그를 불효자라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다.

(幸而振保總中調停得法，沒有抓破臉大鬧，然而母親還是負氣般回江灣了，振保對他太太極爲失望，娶她原爲她的柔順，他覺得被欺騙了，對於他母親他也恨，如此任性地般走，叫人說他不是好兒子。)115)

이 순간 그는 그의 부정적 아니마에 사로잡힌 것이다. 아니마가 통합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 너무 강하게 배치되면 그는 무의식적인 자극에 쉴 새 없이 영향을 받다 여성화되어 요변스러운 남자,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된다.

때로는 분방한 추측, 질투, 의혹에 사로잡혀서 부인을 괴롭히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남성이 바로 완전무결한 호남(好男)의 페르조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113) 張愛玲, 前揭書, p.61

114) 李符永, 『분석심리학』, 前揭書, p.93.

115) 張愛玲, 前揭書, p.62

아니무스가 미분화되면 그것은 '따지는 버릇'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미리부터 정해 놓고 시작하는 의논이므로 아무도 이론(異論)을 제기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의견'의 형태를 취한다. 이로정연(理路整然)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증명하기 위한 궤변이다.¹¹⁶⁾

振保가 烟癮에게 변명하는 것과 篤保에게 嬌蕊 만난 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篤保가 오자, 振保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嬌蕊에 대한 쪽으로 옮겨갔다. 篤保가 담배를 툭툭치면서 경험이 많은 남자의 말투로 말했다. “늙었어. 많이 늙었어.” 마치 이것으로 이 여인에 대해 끝내는 것 같았다.

(篤保來了, 振保閑閑地把話題引到嬌蕊身上, 篤保磕了磕香烟, 做出有經驗的男子口吻, 道: “老了. 老得多了.” 仿佛這就結束了這女人.)¹¹⁷⁾

振保가 생각하며 말하였다. : “난 그녀에게 잘하지 않았나!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그다지 그녀에게 잘못된 점이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못해 주었다고 할 수 없어. 비천한 사람이지. 아마 그녀는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자신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찾아 그녀 자신을 안위해야 할거야. 그래도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振保想道: “我待她不錯呀! 我不愛她, 可是我沒有什麼對不起她的地方. 我待她不能算壞了. 下賤東西, 大約她知道自已太不行, 必須找个比她再下賤的. 來安慰她自己. 可是我待她這麼好, 這麼好 —”)¹¹⁸⁾

그는 곧드레만드레 취해 집에 돌아오거나, 혹은 아예 집에 오지 않았지만, 연리는 항상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말하자면 그로서도 거절할 수 없는 접대가 더

116) C. G. Jung, *Seele und Erde, ibid.*, p.56,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4에서 재인용.

117) 張愛玲, 前揭書, p.64

118) 張愛玲, 前揭書, p.68

많아졌기 때문 일거야 하는 식으로.

그녀는 이 같은 일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다시는 인정 할 수 없었다.

(他醉醺醺回家，或是索性不回來，烟癮總有她自己的解釋，說他新添上許多推不掉的應酬，她再也不肯承認這與她有關。)¹¹⁹⁾

振保는 지금도 항상 술을 마시며 밖에서 여인들과 드러내놓고 놀았지만，예전과 달리 꺼리는 일들도 많았다.

(振保現在常常喝酒，在外面公開地玩女人，不像總前，還有許多顧忌。)¹²⁰⁾

이런 부정적 아니무스는 남성의 아니마를 유혹해서 토론장으로 끌어들이지만 결국 남성은 자기의 미분화된 아니마-분노(Animoaitat)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여성은 '무엇이나 바르게 아는 신'으로서의 아니무스로 하여금 "미안하지만 내가 또 옳았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과장을 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대개 "아니마는 비합리적인 감정이며, 아니무스는 비합리적인 의견이다."¹²¹⁾

烟癮와 재봉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에서 이러한 측면이 나타난다.

振保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한 여인과 관계를 가진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고 몸을 만지더라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振保는 그들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振保很知道，和一个女人發生過關係之后，當着人再碰到她的身體，那神情完全是兩樣的，極其明顯。振保冷眼看着他們倆。)¹²²⁾

또한 부정적인 아니마는 자신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119) 張愛玲, 前揭書, p.69

120) 張愛玲, 前揭書, p.69

121) C. G. Jung, *ibid.*, p.56,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4에서 재인용.

122) 張愛玲, 前揭書, p.67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보람도 없다”는 아니마 기분 (Anima mood)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암울한 기분은 자살을 유혹하기도 하며 그리스의 시레네(Sirens)나 독일의 로렐라이처럼 유혹하면서 파멸에 이끄는 작용을 하며 우리나라 민담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둔갑한 꼬리 아홉 달린 여우의 이미지에서 그 표현을 본다. 서양 중세의 ‘마녀’는 남성들의 부정적 아니마의 투사상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아니마의 다른 측면은 남성들로 하여금 지적(知的) 유희에 사로잡혀서 삶의 생기와 자발성을 무의미한 현학적 사고로 희생시키는 데 있다. 그것은 구혼자들에게 일련의 수수께끼에 답하도록 학답을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죽도록 하는 민담의 여주인공과도 같다. 또한 미숙한 아니마는 원시적인 색정적(色情的) 환상 속에 나타난다.¹²³⁾

振保와 기녀와의 관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가는 실로 짠 검정레이스 아래 빨간색 속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는 빨간색 속옷을 좋아했다. 이런 곳에 작은 여관과 이 정도의 여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她在黑累絲紗底下穿着紅襯裙。他喜歡紅色的內衣。沒想到這地方也有這等女人，也有小旅館。)¹²⁴⁾

그녀의 옅은 갈색 얼굴이 길다란 타원형이었기에 마치 다른 어른처럼 보였지만, 이때에는 어린티가 드러났다. 큰 눈으로 새장안의 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을 뻥히 뜨고 있으니 흰자위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마치 깊고 푸른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她那棕黃色的臉，因為是長圓形的，很像大人樣，可是這時候顯得很稚氣。大眼睛望着籠中鳥，眼睜睜的，眼白發藍，仿佛是望到極深的藍天里去。)¹²⁵⁾

잘 분화된 아니무스가 창조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듯 잘 분화된 아니마는 남

123) 李符永, 『분석 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4

124) 張愛玲, 前揭書, p.37

125) 張愛玲, 前揭書, p.39

성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어 그들의 추상적 사물에 의해서 흐려진 시야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振保가 침대에서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다음 예로 들 수 있다.

다시 침대에 누우며 그가 한숨을 내쉬자 마치 과거 그의 선량했던 기운들이 몰래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 그를 포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많은 근심걱정과 책임감이 모기와 함께 웅웅거리고 맴돌며 그를 물고 빨아들었다.

이튿날 침대에서 일어나, 진보는 스스로 개과천선하여 좋은 사람으로 변화였다. (再躺下的時候, 他嘆了口氣, 覺得他舊日的善良的空氣一點一點偷着走近, 包圍了他。無數的煩憂與責任與蚊子一同嗡嗡飛繞, 叮他, 吮吸他。

第二天起床, 振保改過自新, 又變了個好人.)¹²⁶⁾

아니마는 영원으로 향하는 이념에의 열정이다. “아니마가 투사되는 곳에 곧바로 주목 할 만한 역사적 감정이 일어난다. 괴테(Goethe)가 이를 다음과 같은 말에 옮겨 놓았다.

‘아, 너는 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나의 누이, 나의 아내였구나.’¹²⁷⁾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각기 4단계의 발전단계를 가지고 있다.

아니마의 첫 단계는 이브(Eve) 상(像)으로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여성상이다. 둘째 단계는 파우스트의 헬렌(Helen)이며 이는 낭만적이고 미적 수준의 아니마의 인격화로서 아직 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단계는 성모마리아상에서 표현되는 영적 헌신으로 지양된 에로스이며, 넷째 단계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한 지혜, 연금술의 사피엔티아(Sapientia)로 표현된다. 모나리자가 그러한 지혜의 아니마와 가깝다. 폰 프란츠는 보편적인 중국의 아니마 이미지는 ‘달의 여인’이며 마리아상에 비길 수

126) 張愛玲, 前揭書, p.71

127) C. G. Jung, *ibid.*, p.58,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5에서 재인용.

있는 동양의 예는 관음보살이라 했다.¹²⁸⁾ 민담에서는 사람들에게 시와 음악의 재능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는 ‘달의 여인’ 일 것이라고 말한다.¹²⁹⁾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振保의 아니마 측면에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집에 돌아와 짜증을 부리며 소심해져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우, 이성간의 사랑에서 강렬한 황홀감과 현자(賢者). 영웅으로 인식될 때, 원형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정이 때로 강렬한 혐오감, 공포감, 외경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 했다. 아니마의 측면으로 볼 때 평범한 물질이 마력을 지닌 것으로 변하여 인간이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봉하게 되고, 모성상을 그대로 부인에게 전이하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인해 모성에의 의존에 집착하게 된다. 남성이 외계에 관심을 두면 들수록 아니마는 독선적 감정, 고집 불통의 정열이라는 특징을 띠고 하나의 여성상에 집약하며, 아니마가 통합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 너무 강하게 배치되면 무의식적인 자극에 쉴 새 없이 영향을 받다 여성화되어 변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추측, 질투, 의혹에 사로잡혀서 부인을 괴롭히는 수도 있다는 것 등이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振保에게 잘 드러나고 있다. 아니무스가 미분화되면 그것은 ‘따지는 버릇’으로 표현되어, 논리적 판단이 아닌 궤변이며, 미숙한 아니마는 원시적인 환상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분화된 아니마는 흐려진 시야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고찰해 보았다.

128) 李符永, 前掲書, pp.95-96

129) 李符永,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2004), p.100

제 2 절. Animus 側面과 烟囪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성인의 조건으로 삼았고 신성시하였다. 독신자에 대한 백안시와 동정, 불안감이 동양 사회처럼 강한 곳이 없는 것도 결혼을 신성시하고 이를 성인의 절대적 조건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관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대극의 합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합일,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그의 '아니마', 여성적 의식과 '아니무스'의 합일을 전통적 결혼관에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성간의 결합관계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흔히 말하듯이 일심동체가 아니고 일심일체의 남성과 일심일체의 여성의 만남인 것이다. 결혼 생활의 문제점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대 속에 아니마 원형과 아니무스 원형을 투사하며, 또 각기 그 원형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자 할 때 일어난다. 이 관계는 실락원(失樂園) 이전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관계 같은 것이지만, 성숙에 필요한 갈등과 고통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으로서의 성장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다.¹³⁰⁾

아니무스 측면에서 자타(自他)가 공인하는 여자다운 여자가 아이들에게 야단치거나 느닷없이 흥분하여 남자 못지 않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수가 있다. 또한 여성이 여성을 업신여기고 구박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자유로운 여성에 대한 질투,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끝없는 恨, 복수, 가학을 통한 자학의 반복된 행위의 악순환이다.¹³¹⁾

고부간의 관계로 다음의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해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였다.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기에 한번쯤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시어머니는 또한 그녀가 낳은 아이가 여자 아이였기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다.

130) 李符永, 前掲書, p.92

131) 李符永, 『아니마와 아니무스』(서울: 한길사, 2003) p.202

(到那年,她添了个孩子,生產的時候很吃了些苦,自己覺得有權利發一回脾气,而婆婆又因爲她生的不過是个女兒,也不甘心讓着她,兩人便樞起气來.)¹³²⁾

振保 모친 또한 여성으로 아이를 낳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 수 있겠으나 동양의 남성우월의식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평소에는 '용기 있는 남자'가 위기에 처해 안절부절못하고 그답지 않게 불안해 할 때, 평소에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조용한 부인이 남성과 같은 용단과 담력과 이성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는 경우를 본다.¹³³⁾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기의 무의식의 부정적 아니무스, 부정적 아니마를 중심스럽게 뒷전으로 돌려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대개 그러한 여성들은 좀 고집이 있고 다소 경직되어 있으나 착하다는 말을 듣는다.¹³⁴⁾

烟嬾는 이때 오히려 용감한 어린 부인이 되어 곧 서른살이 되는 사람같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어른스러워져 말도 유창하고 감동적이었으며 막힘 없이 울면서 호소했다.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정말 저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모두 그에게 의지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공장 일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굴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번씩 들어오면 바로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때려부수었다. 이런 세월 동안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烟嬾這時候倒變成了一個勇敢的小婦人,快三十的人了,她突然長大了起來,話也說得流利動聽了,滔滔向人哭訴:“這樣下去怎麼得了呵!眞是要了我的命—一家老小靠他一個人,他這樣下去厂里的事情也要弄丟了.....瘋了心似的,要不就不回來,一回來就打人砸東西.這些年了,他不是這樣的人呀!)¹³⁵⁾

모두 가부장사회의 집단 의식과 동일시한 남녀의 의식의 태도와는 다른 또

132) 張愛玲, 『張愛玲作品集』(中國:南海出版公司, 2004), p.62

133) 李符永, 『분석 심리학』(서울: 일조각, 2004), p.87.

134) 李符永, 『아니마와 아니무스』(서울: 한길사, 2003), p.203

135) 張愛玲, 前揭書, pp.70-71

하나의 무의식적인 태도가 남녀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다.

여성은 남성에게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며 남성으로부터 생각하는 힘을 얻는다.¹³⁶⁾ 그러나 부정적 아니무스 역시 파괴적인 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신화나 민담에서 죽음의 나라의 신 하데스, 도둑이나 살인자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있으면 한 어머니가 그녀의 남편, 자식들을 병들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의 결혼을 막을 수도 있다. 혹은 스스로에게 “아무 것도 소용없다”, “너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속삭이는 소리로 영향을 준다.¹³⁷⁾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는 이러한 선상에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의 성숙은 자기의 의식에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구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찾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킨다.

욕실에서 烟癮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스스로 일깨우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振保는 烟癮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는, 신문에 난 광고에 따라 약을 사 그녀에게 먹으라고 하였지만, 후에 그녀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껴졌다. 마치 차라리 병이 낳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여, 자중하기로 맘을 먹고 그도 신경을 쓰지 않아 버렸다.

(振保帶烟癮去看醫生，接照報紙上的廣告買葯給她吃，后來覺得她不甚熱心，仿佛是情愿留着這點病，挾以自重。他也就不管了。) ¹³⁸⁾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한다면 이것은 끝없는 상호투사로 인한 고태적(古態的) 결합을 장려하는 말이며, 때로는 개체의 성숙을 저해하는 조건

136) 李符永, 前揭書, p.92.

137) C. G. Jung,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李符永 譯, (서울: 집문당, 1993), pp.183-185, 196-198.

138) 張愛玲, 前揭書, p.67.

이 된다. 그리고 이 행복감과 신비적 융화로서의 결혼은 그것이 너무 인위적인 틀로서 강요되면 내부에서, 또는 밖에서 오는 작용에 의하여 파괴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는 사실상 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위해서는 귀중한 기회이다¹³⁹⁾.

烟癮가 振保가 바람을 피워도 지켜보는 것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자신에게 변명하였다. 나중에는 그의 제멋대로 구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또 남들에게 변명하고 미소를 띄우며, 진심으로 그를 위해 가리고 덮어 주었다. 그 때문에 振保가 비록 밖에서 말이 아닐 정도로 소란을 부리고 하마터면 기녀까지 집으로 데려올 뻔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기개 있고 남자다운 좋은 사람이라 여겼다. (她固執地向自己解釋, 到後來, 他的放浪漸漸顯著到瞞不了人的程度, 她又向人解釋, 微笑着, 忠心地爲他掩飾. 因之振保雖然在外面鬧得不像樣, 隻差把妓女往家里帶, 大家看着他還是個頂天立地的好人.)¹⁴⁰⁾

그 날 오후 그는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놀며, 고의로 집에 와서 맴돌며 돈을 찾았다. 여인은 삼륜차에 앉아서 그를 기다렸다. 방금 개인 날씨여서 거리에 물은 빠지지 않았고, 누런 강물에는 플라타너스가 겹겹이 그림자 졌다. 맞은편 거리에 있는 홍등가 일대의 초록색 나무에 푸른빛이 감돌고, 연통을 통해 습기를 머금은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와 낮게 날고 있었다. 振保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서 양산으로 수면 위를 치자, 여인의 몸에 물이 튀었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자 그는 삼륜차 위로 뛰어 올라타며 큰소리로 웃었지만, 웬지 찻찻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 윗층의 창문을 바라보니, 연리가 창문에 서서 밖을 향해 보고있는 듯했다. 마치 오래되어 낡고 누렇게 때가 낀 하얀 레이스 찾잔 받침을 욕실 벽위에 붙여 놓은 듯 하기도 하고, 얼은 하얀색 집시의 가운데 둥그렇게 붙여 있는 차의 찌든 때 같기도 했다.

(那天下午他帶着個女人出去玩, 故意兜到家里來拿錢.

女人坐在三輪車上等他. 新晴的天氣, 街上水還沒退, 黃色的河里有洋梧桐團團的影子. 對街一帶小紅房子, 綠樹帶着青暈, 烟癮里冒出濕黃烟, 底底飛着.

139) 李符永, 前揭書, p.92.

140) 張愛玲, 前揭書, pp.69-70.

振保拿了錢出來，把洋傘打在水面上，濺了女人一身水。女人尖叫起來，他跨到三輪車上，哈哈笑了，感到一種拖泥帶水的快樂。抬頭望望樓上的窗戶，大略是烟鷗立在窗口向外看，像是浴室里的牆上貼了一塊有黃漬的旧白累絲茶托，又像一個淺淺的白襪子，心子上沾了一圈茶污。)141)

삼륜차가 물을 튀기며 지나가던 중 고여있던 물이 옆에 있던 여인의 구두와 핸드백 그리고 옷까지 튀어 올랐으며,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그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振保가 웃으며 한 손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지만, 여전히 물이 튀어 올랐다. 그 후, 烟孌도 더이상 그를 위해 변명을 할 수 없었다. 振保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기에 딸의 학비도 내지 못하였으며 매일 먹어야되는 음식거리를 사지 못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다.

(三輪車在波浪中行駛，水濺潮了身邊那女人的皮鞋皮夾子與衣服，她鬧着要他賠。

振保笑了，一隻手摟着她，還是去潑水。

此后，連烟孌也沒法替他辯護了。 振保不拿錢回來養家，女兒上學沒有學費，每天的小菜錢都成問題。)142)

여성은 반대로 의식에 있어서의 사적인 감정적 태도와는 달리 무의식에서의 남성적 요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성격을 띤다. '그것은 마치 다수의 재판관, 아버지들의, 혹은 그 밖의 권위자들의 집회'처럼, 굽힐 수 없는 정당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振保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烟孌의 느낌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烟孌가 옆에서 지켜보니, 그야말로 화가 치밀어 건딜수 없을만큼 만나는 사람마다 억울한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烟孌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 振保는 집안에 활발하고 우아한 주부가 없기에 접대를 하려면 차라리 돈을 몇푼 더 들더라도 밖에서 초대하는게 더 낫다며 지금까지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었다.

141) 張愛玲, 前揭書, p.70

142) 張愛玲, 前揭書, p.70

(烟嬾在旁看着，着實氣不過，逢人便聽屈，然而烟嬾很少機會遇見人，振保因為家里沒有一個活撥大方的主婦，應酬起來寧可多花兩個錢，在外面請客，總來不把朋友往家里帶.)¹⁴³⁾

그것은 또한 수많은 전제들의 대백과사전, 말, 의견, 법칙, 평균진리. 판단, 이성들이다. 때로는 건전한 인간 이해의 형태로, 때로는 찌르는 듯한 편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이란 누구나 그런 거야” 하는 식의 교육용으로 개작된 법의 모습을 아니무스는 나타난다고 옴은 말한다.¹⁴⁴⁾

원형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정은 반드시 황홀한 신비감만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강렬한 혐오감,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¹⁴⁵⁾

다음은 振保가 출근한 후 갑자기 비가 내려 우산을 가지러 집에 들렀는데 한 번도 생각 해 보지 못한 아내의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상황이다.

손으로 거실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烟嬾가 거실에 있었으며, 재봉사도 쇼파 한쪽에 서 있었다. 모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에 振保는 마음을 놓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또 처음부터 치수를 재는 것 같았다. 그는 긴장감을 느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것은 분명 방안의 다른 두 사람이 긴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手接在客室的門鈕上，開了門，烟嬾在客室里，還有個裁縫，立在沙發那一頭。一切都是熟悉的，振保把心放下了，不知怎的驀地又提了上來。他感到緊張，沒有別的緣故，一定是因為屋里其他的兩個人感到緊張.)¹⁴⁶⁾

烟嬾가 앞으로 마중 나와 대답하면서, 약간은 당황해 하는 듯했다. 양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하며, 무슨 일을 하려는 듯 서둘러 손을 뺀어 라디오를 켰다.

143) 張愛玲, 前揭書, p.66

144) C. 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bten* (Zurich: Rascher Paperback, 1963) p.102,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3에서 재인용.

145) 李符永, 上揭書, p.88

146) 張愛玲, 前揭書, p.67

(烟嬭迎上前來答應着，似乎還有点心慌，一双手沒處安排，急于要做点事，順手捻開了無線電。)¹⁴⁷⁾

烟嬭와 재봉사가 함께 있다가 振保가 들어오니 당황해 烟嬭의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장면에서 아니무스 감정이 때로는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147) 張愛玲, 前揭書, pp.67-68.

제 3 절. Animus 側面과 嬌蕊

병리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도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의 투사현상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정신의학에서 애정망상(erotic delus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환자는 우연히 만난 어떤 남자.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속의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자기와 결혼 할 것이라는 굽힐 수 없는 믿음을 갖는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결코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속성을 띤 초인적 존재이다.¹⁴⁸⁾

嬌蕊가 振保가 자기와 결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지금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어떻게 알려줄까 생각중이에요.” 라고 하였다. 마치 이미 결정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사공에게 알려주려고 하였으며, 그와 이혼한 후 振保에게 시집온다고 했다.

(有一天她說：“我正在想着，等他回來了，怎麼樣告訴他-”

就好像是已經決定了的，要把一切都告訴士洪，跟他離了婚來嫁振保.)¹⁴⁹⁾

그녀는 대단히 자신이 있었으며, 그저 그녀 자신이 그 문제만 해결한다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고 여겼다.

(她是十分自信的，以為隻要她這方面的問題解決了，別人總是絕無問題的.)¹⁵⁰⁾

오랜 시간동안,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안심하세요. 내가 반드시 정성을 다할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끌어당겨 그녀의 팔 위로 가져갔다.

(良久良久，她伸手摸索他的手，經經說道：“你放心，我一定會好好的。”她把他的手牽到她臂膊上.)¹⁵¹⁾

148) 李符永, 前揭書, p.90

149) 張愛玲, 前揭書, p.53

150) 張愛玲, 前揭書, p.53

嬌蕊는 빨갱게 부은 얼굴을 들어 올려, 그를 한번 주시해 보더니 순식간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는 마치 방금 어떻게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지 매우 의아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嬌蕊抬起紅腫的脰來, 定睛看着他, 飛快地一下, 她已經站真了身子, 好像很詫異剛才怎麼會弄到這步田地.)¹⁵²⁾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망상이다. 정신병리학에서 망상이란 이성적인 설득으로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단순한 선입견이나 착각처럼 수정 될 수 있는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다. 애정망상의 대상인 ‘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 알더라도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이어서 그 사랑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도 환자는 그 사랑을 굳게 믿는다. 그 환자가 믿는 사랑의 증거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병적 체험이다. 지각상의 장애, 즉 아무도 없는데 귀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는 텔레파시로 나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등으로 표현한다.

정신분열병이나 그 밖의 정신병의 증상을 분석심리학에서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층이 어떤 원인에 의해 병적으로 항진되어 자아의식을 분열시키거나 또는 사로잡은 상태라고 보는 만큼 환자는 여러 가지 원형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¹⁵³⁾ 환자의 망상 속에 그림자 원형과 함께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험하는 사랑의 대상은 모두 초인적 능력이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불가사의한 실체, 나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는 자,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로 미루어 이 상이 결코 일상적인 여성, 또는 남성상이 아닌 신화적인 상, 즉 아니마·아니무스의 원형상임을 알 수 있다.¹⁵⁴⁾

아니무스의 네 발전단계 중 첫 단계는 레슬링선수나 운동경기의 스타, 타

151) 張愛玲, 前揭書, p.57

152) 張愛玲, 前揭書, p.59

153) 李符永, 前揭書, pp.219-236

154) 李符永,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2003) pp. 226-227

잔처럼 육체적인 영웅이며 둘째는 낭만적인 남성, 또는 행동적 남성으로 전쟁영웅의 이미지 속에 발견되는데 주도권과 계획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남성상이다. 셋째 단계는 교수나 목사의 상으로 '말씀'의 사자(使者), 넷째 단계는 종교적 체험의 중개자이며 영적 진리로 끌어가는 지혜로운 안내자-예컨대 간디의 이미지에 있다.¹⁵⁵⁾

페르조나가 외부 세계와 자아를 연결하는 관계기능(Beziehungsfunktion)이라면 '마음'(心)은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며 그 깊은 층으로 인도하는 관계 기능이다.

페르조나를 잃을 때 외부와의 관계를 상실하듯 마음이 외계로 투사되면 그것이 투사되지 못할 때 자아가 무의식에 의하여 범람되는 것과는 달리 자아의 내면 세계와의 관계가 정지된다. 심상(心像)을 파악하려 할 때 의식은 불가불 심상의 자율적인 과정에 대하여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아의식은 한편으로는 심상으로부터 자아의 태도를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심상을 의식적으로 투사케 함으로써 그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관찰하기 위하여 이를 '나'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이 아니마의 인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하는 '아니마의 객관화'(Objektivierung der Anima)와 서로 통하는 말이다. 용은 자기의 내부에 있는 '아니마'와의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아니마 성향'의 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¹⁵⁶⁾

아니무스 인식에 있어서는 이것의 외향화를 경계하여야 한다. 아니무스 의견은 곧잘 바깥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가견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Animus possessed woman)은 여성다움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안에 속하는 것을 밖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155) C. G. Jung, *Die Psychologie der Ubertragung*, (Zurich: Rascher Verlag 1958), pp.185-186,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6에서 재인용.

156) C. 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bten*, (Zurich: Rascher Paperback, 1963) pp.94-95,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p. 97-98에서 재인용.

아니무스는 의식의 외부세계로 향한 관계 기능이 아니고 무의식으로 향한 관계 기능이다. 아니무스는 착상기능(Einfallsfunktion)으로서 안으로 향하여 무의식의 내용을 머리에 떠오르게끔 해야 한다.¹⁵⁷⁾

아니무스와의 만남도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아니무스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통하여 그 유래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원형과 마주치게 된다.

157) C. G. Jung, *ibid.*, p.103, 李符永,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4), p.98에서 재인용.

第 5 章. 結 論

張愛玲이 발굴해낸 것은 바로 어느 시대에도 늘 존재하는 ‘여성성’(인성)속에 내재된 ‘영원성’이다. 1944년 소설집 『傳奇』를 발표한 張愛玲(1920-1995)의 출현은 그녀의 시대에 대해서건 중국 현대문학의 전시기에 대해서건 하나의 ‘의외’가 아닐 수 없다.

張愛玲은 힘든 청소년기를 겪고 난 후 생계를 위해 창작 활동을 시작한 데에서 작가의 길이 열려 명성을 얻게 되고 『苦竹』을 주편한 胡蘭成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혼을 하였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 張愛玲은 “이러한 것들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모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¹⁵⁸⁾고 말할 정도로 창작 소재로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화 시켜 보면 불행한 연애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글쓰기는 작가 자신의 욕망과 사유, 정감, 기억, 상상 등의 심리적인 기능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능은 작가의 기질, 인격, 개성 그리고 가정 환경, 교육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그가 과거에 체험한 특히 어린 시절에 체험한 상처나 박탈, 좌절을 훗날 공상과 백일몽을 통해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⁵⁹⁾

그러나 張愛玲의 글쓰기가 개인의 욕망 충족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표현욕이나 자기 목적에 그쳤던 것으로 보여지는 않고, 張愛玲의 문학이 인간 삶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그것의 극복을 향한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張愛玲 소설 「紅薔薇與白薔薇」에 등장 인물 중에서 振保, 烟燴, 嬌蕊에 대해 융의 접근 방법으로 본 분석심리학설은 경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는

158) 張愛玲. 『流言』, (臺灣: 花城出版社, 1997), p.129

159) 김열규,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서울: 고려원, 1992). p.151.

경험심리학, 심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현상학적 접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설인 응용 심리학으로 그들의 전체적 접근 방법을 因果론과 目的론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張愛玲의 글이 체험, 성격, 가정환경 등에서 형성된 심리적 과정을 형상화하여 世上事 인생에 대한 관찰과 비판을 담아낸 결과라며, 「紅薔薇與白薔薇」에 등장한 몇몇 인물들의 묘사만을 가지고 소설이나 심리적 경향을 단정짓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아니마 원형이 지니고 있는 ‘기분’의 성질은 어둡고 밝은 여러 뉘앙스를 띠고 있어서 꼭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니마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처럼 붙잡기 어려운 존재이다.¹⁶⁰⁾ 다시 말해서 의식화하기가 쉽지 않다.

무의식의 존재란 자율성, 창조성의 가설로 대극과 그 合一의 사상이라는 것, 中心사상은 全人的 人間心性論으로 魂이 있는 심리학(Psychologie mit der Seele)이다.

프로이드와 융의 공통점은 경험심리학으로 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전기문과 소설의 다른 점은 事實과 虛構라는 크나 큰 차이가 있다. 픽션이라는 소설 안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들을 각각의 부분에 도입 시켜보았기에, 논자에 따라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심리 표현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무스 인식에 있어서는 이것의 외향화를 경계하여야 한다. 아니무스 의견은 곧잘 바깥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가견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Animus possessed woman)은 여성다움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안에 속하는 것을 밖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니무스는 의식의 외부세계로 향한 관계 기능이 아니고 무의식으

160) 李符永,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서울: 집문당, 1995), pp.188-235.

로 향한 관계 기능이다. 아니무스는 着想機能으로서 안으로 향하여 무의식의 내용을 머리에 떠오르게끔 해야 한다. 아니무스와의 만남도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아니무스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통하여 그 유래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張愛玲의 女性觀¹⁶¹⁾을 통해서 작가가 인간의 삶에 대한 절망감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극복을 향한 노력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1) 超人은 男性的이지만, 神은 女性的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超人和 神은 다르다. 超人은 진취적이며 일종의 생존 목표이다. 神은 넓은 동정이며 자비이고 이해이자, 안식이다. 超人是男性的, 神卻帶有女性的成分, 超人與神不同. 超人是進取的, 是一種生存的目標, 神是廣大的同情, 慈悲, 了解, 安息.

張愛玲, 前揭書, pp.74-75

參 考 文 獻

TEXT

- 『張愛玲 作品集』 (南海出版公司 2004年)
『張愛玲 典藏全集』 「紅薔薇與白薔薇」 哈爾濱出版社 2003年

I. 國內文獻

- 고민희, 김장환, 김태곤,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1994.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4.
김상주, 『中國現代女性作家作品選集』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김하림, 『중국인도 다시 읽는 중국사람 이야기』 에디터, 1998.
라만 셸던, 『現代 文學 理論 개관』 정정호 역, 한신문화사, 1998.
루쉰, 『중국 현대 단편선』 류성준 역, 혜원출판사, 1999.
민희식, 『프로이트 정신분석』 정민미디어, 2001.
방석찬, 『Jung』 김영사, 2002.
백영길, 『中國抗戰期리얼리즘文學論爭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빙심, 동내빈, 전리군, 『그림으로 읽는 중국문학 오천년』 예담, 2000.
小野和子, 『현대중국여성사』 李東潤 역, 正字社, 1985.
수산나 타마로, 『아니마 문디』 이현경 역, 고려원, 1998.
에마 응, 『아니마와 아니무스』 박해순 역, 문예신서, 1995.
안혜련, 『페미니즘의 거울』 인간사랑, 2001.
오중걸, 『中國現代文藝思潮史』 신아사, 2001.
이무석, 『精神分析에로의 초대』 이유, 2004.
이무석, 『分析心理學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4.
-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1995.
- 이부영, 『分析心理學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4.
- 이부영, 『分析心理學의 기본특성』 2005.
- 이부영, 『分析心理學 심리학적 유형론』 2003.
- 이숙진, 『글로벌 자본과 로컬 여성』 푸른사상, 2004.
- 임정빈·정혜정, 『성역활과 여성』 신정, 2002.
- 張愛玲, 『秧歌』 하정옥 역, 벽호, 1995.
- 張愛玲, 『반생연』 권효진 역, 문일, 1999.
- 조너선 D.스펜스, 『천안문』 정영무 역, 이산, 2002.
- 조너선 D.스펜스, 『현대중국을 찾아서1, 2』 김희교 역, 2002.
- 조세핀 도너번,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이월영 역, 문예출판사, 1993.
-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선 역, 문예출판사, 1997.
-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백상창 역, 문예출판사, 2000.
- 진경년, 『플로베르와 감정교육』 地平, 2003.
- 팸 모리스,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이창순, 정진성 편역, 한올아카데미, 1997.
- 허세욱, 『中國現代文學史』 범문사, 1999.
- 黃修己,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語文研究會 譯, 범우사, 1990.
- 선정규, “張愛玲의 남성 본위와 여성 본위.” 『청주대학원 국제문화연구』, 第2집 (1985).
- 최인애, “張愛玲 단편소설 연구(1).” 『영남대 중국어문학』, 12집 (1986).
- 최인애, “張愛玲 단편소설 연구(2).” 『영남대 중국어문학』, 14집 (1988).
- 李康姬, “張愛玲 단편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9.
- 焦育文, “張愛玲의 傳寄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5.
- 洪銀希, “張愛玲의 초기 소설 연구-作中人物의 心理分析을 中心으로.” 석사

학위논문 전북대학교, 1997.

李光實, “張愛玲 초기 단편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9.

李淑娟, “張愛玲小說試探--여성주의 문학비평의 관점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0.

『精神分析』 한국정신분석학회 제14권 제1호 2003년 6월호

II. 國外 文獻

- 胡辛，『最後的貴族.張愛玲』國際村，民國 84年。
- 胡辛，『張愛玲傳』作家出版社，1996年。
- 孔慶茂，『張愛玲傳』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1996年。
- 邵伯周，『中國現代文學思潮研究』學林出版社，1993年。
- 盧正珩，『張愛玲小說的時代感』麥田出版有限公司，民國 83年。
- 唐文標，『張愛玲雜碎』聯經出版社，民國 65年。
- 唐文標，『張愛玲研究』聯經出版社，民國 65年。
- 唐文標，『張愛玲券』遠景出版事業公司，民國 71年。
- 唐振常 主編，『上海史』上海人民出版社，1989年。
- 盛英 主編，『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 上.下』天津人民出版社，1995年。
- 水晶，『張愛玲的小說藝術』大地出版社，1973年。
- 水晶，『張愛玲未完』大地出版社，民國 85年。
- 施建偉，『中國現代文學流派論』陝西人民出版社，1986年。
- 楊義，『中國現代小說史 第三卷』人民文學出版社，1991年。
- 楊儀，『二十世紀中國小說與文化』臺北：業強出版社，1993年。
- 嚴家炎，『中國現代小說流派史』人民文學出版社，1989年。
- 嚴家炎，『中國現代小說流派史』人民文學出版社，1989年。
- 喬以綱，『中國女性的文學世界』湖北教育出版社，1993年。
- 魏平. 李江 編，『張愛玲--自傳 畫傳 別傳』新疆青少年出版社，1996年。
- 于青，『天才奇女--張愛玲』花山文藝出版社，1992年。
- 于青，『張愛玲傳』世界書局股份有限公司，民國 82年。
- 劉思謙，『‘娜拉’言說--中國現代女作家心路紀程』上海文藝出版社，1993年。
- 劉三鄂，『張愛玲傳』北京十月文藝出版社，2000年。
- 任一鳴，『女性文學與美學』新疆人民出版社，1995年。
- 林幸謙，『張愛玲論述--女性主體與去勢模擬書寫』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00年.

張健，『張愛玲的小說世界』臺灣學生書局，民國 73年.

張健，『張愛玲新論』書泉出版社，民國 85年.

張毓茂，『二十世紀中國兩岸文學史』遼寧大學出版社，1988年.

張愛玲，『張愛玲文集』 一三四 增補卷 安徽文藝出版社，1992年.

錢理群，『中國現代文學三十年』上海文藝出版社，1987年.

鄭樹森 臺北允，『張愛玲的世界』臺北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1989年.

余彬，『張愛玲傳』海南出版社，1993年.

陳炳良，『張愛玲短篇小說論集』遠景叢刊305，民國 72年.

陳思和，『中國新文學整體觀』臺北：業強出版社，1990年.

陣子善 編，『私語張愛玲』浙江文藝出版社，1995年.

陣子善，『作別張愛玲』文匯出版社，1996年.

沈小蘭 編，『張愛玲與蘇青』安徽文藝出版社，1994年.

沈小蘭 于青，『張愛玲與蘇青』花城出版社，1994年.

夏志清，『中國現代小說史』傳記文學史，民國 68年.

向弓 主編，『貴族才女張愛玲』四川文藝出版社，1995年.